제711호 1989년3월4일 창간 2002년 12월 15일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할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편집국장 : 이형수

지난주요예배설교

오시는 예수님은? (요 2:13~17)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면에서 기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공격적이며, 친근하게 접근하시며, 환영받으시는 분으로 보았다.

공격적인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가 평강과 위로를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휘저어 놓으셨다. 제사에 쓰일 제물을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인하여 종교지도자들은 당황했으며 성전은 소동에 휩싸였다. 주님은 왜 그렇게 공격적이셨을까? 주님은 예배하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자들의 탐욕을 결코 간과할 수 없으셨다. 죄인과 관계 맺고자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긍휼을 무시하고 예배를 더럽히는 무리들의 알팍한 장삿속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다. 사실 주께서 공격적이신 것은 바단 그들의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주께서 공격적이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가 천한 분이시기 때문이다(사 53:3). 생각해 보라. 명예와 부귀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천하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도전적인 분이신가!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목숨을 버리신 구주는 얼마나 양심을 찌르는 도전적인 분이신가!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이다(요 1:11)!

친근한 예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무시하는 자들, 자신의 명예와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공격적인 분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언제나 친근하게 접근하시는 분이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리스도는 천한 분이시지만, 그는 죄인의 친구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근하게 접근하시는 자비로운 구주이시다(요 5:1,6). 그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시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다. 그래서 그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1:12), 인간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며(요 5:8), 진실로 영원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환영받으시는 예수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전통을 뒤흔드는 자요, 율법을 무시하며 성전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낮은 자들에게 환영을 받으셨다(요 12:12~13).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환영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셨고(마 16:21), 희롱과 능욕과 침 뱉음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눅 18:31~32). 그는 스스로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실로 그리스도를 환영하려면, 고난의 메시아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는 진실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비하'(卑下)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 세상의 영광을 안겨주는 메시아를 환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숭배임을 기억하라. 진실로 참되신 구주를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가 받으신 고난을 함께 짊어져라!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그의 이름에 무릎꿇게 만들고 모든 입술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닫고 오묘한 그 말씀 / 12월 13일 금요집회

4. 만국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
3. 요나서

요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셨고,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경고하게 하셨다(욘 3:4).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몹시 불만스러웠었다. 그것은 '니느웨'를 이스라엘의 원수요 사납고 패역한 자들이며 구원시켜야 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피할 수 없었다.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지 못했듯이(렘 1:6~7,10), '요나'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강제적으로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다(욘 1:15,17). 결국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욘 3:7,8,10).

요나서에 대한 견해

'요나'서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다양한 비판과 이론을 제시한다. 항상 거론되는 문제는 '요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가?'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하여,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이요, '요나'서에 기록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는다(마 12:38~41, 눅 11:29,30,32). '요나'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요나'서를 선교활동의 책으로 보거나, 에스겔 18:23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견해를 함께 생각해 보면, '요나'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먼저 택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열방에 구원을 전하게 하시는 선교에 대한 언급임이 틀림없다.

-요나서에 나타난 선교적 목적

'요나서'에 나타난 선교적 목적은 4장에 잘 나타난다. 자기 백성만을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주기를 싫어하는 요나(욘 4:1~2), 그러한 민족주의와 차별주의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욘 4:9~11)!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어떠한 민족들이라도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요나서' 4장은 1절~5절, 6절~11절로 각각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요나'의 비협조적이고 강짜한 태도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욘 4:2).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요나'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앗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보복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확실히 '요나'는 비정상적인 선교사였다. '요나'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실 뿐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모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원수들에게까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요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하다. 시들어버린 넝쿨을 보면서 분노하던 '요나'의 태도는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진실로 넝쿨이 문제가 아니라,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 여명의 사람들을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야말로 선교를 위한 호소가 아니고 무엇이랴! 바로 여기에 '요나서'의 전체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랴?"(욘 4:11).

요나를 보내시는 목적

열왕기하 14장 24절~25절을 볼 때, '요나'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향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는 것일까? '이스라엘'도 '앗수르' 버금가도록 범죄가 가득한데도, 왜 '니느웨'로 보내신 것인가? 그 이유는 한 가지이다. 다른 민족들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롬 3:22).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도성들 중에서 하필 이면 '니느웨'를 택하시고 '요나'를 보내시는가? 그것은 '니느웨'를 택하신 이유 외에도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약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고대 당시의 최고의 도성에서 벌어지는 회개는 이웃 나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니느웨'의 회개는 이스라엘과 주변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그들도 동일하게 반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갈 3:28). 그래서 예수께서도 '니느웨' 성을 예로 들어 설교하셨다. 심판 때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진리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게 될 것이다(마 12:41).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생기게 하여 분발하도록 하신다. 즉 이방민족이 믿음의 월등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아드느는 모습을 보면서(엡 2:16,17,19),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또 한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된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또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며 각성하는 모습(골 1:11,13,14, 1:26~27), 그 모습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회개하고 각성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계 3:16,19).

'메시아'(Messiah) 연합 찬양 이번 주 금요집회 시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메시아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우리의 죄악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메시아는 가장 찬란한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계 1:13~16)! 그 날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7).

이번 주 금요집회 시간에는 충현교회 찬양대가 연합하여 '메시아'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하며, 모든 족속들이 그를 경배하며 맞이하도록 전도와 선교의 현신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Sermon for next week

ANGEL'S APPEARANCE

(Matthew 1:18-25)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The New Testament begins with a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Right from the beginning it states that He is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v. 1). Son of David was a highly popular messianic title of the times and Son of abraham was a very familiar religious expression denoting Israel's ancestry. Abraham was called by the Lord and given a wonderful blessing. God told Abraham, "And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the one who curses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Gn. 12:3). Indeed, God's promise that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was fulfilled in the coming of Abraham's seed, Jesus Christ. Also, God gave Abraham the ability to bless and curse others. If people accepted Abraham they would be blessed, and if people cursed Abraham they would get cursed. That blessing means that through Jesus Christ those who believe in Him can be saved, but those who don't will be cursed. So, the birth of Jesus Christ really connects to Abraham's blessing. Matthew 1 is a very powerful testimony to God's divine providence.

From the Old Testament book of Malachi to the New Testament book of Matthew is a period of 400 silent years. Israel had experienced total destruction. Their enemies had even demolished the Jerusalem Temple. The remnant held in captivity returned and rebuilt, but still the long, long years of no prophecies. But then an angel appeared to Joseph concerning Christ's birth! A beautiful angel connected Abraham's blessing to the present and future. God's promise to Abraham found fulfillment on this earth with the birth of Jesus Christ.

There are several angel appearances concerning Christ's birth. An angel of the Lord met with Zacharias to tell him that his son would "go as a forerunner" before Christ to prepare His way (see Lk. 1:11-17). Gabriel was sent to inform Mary of her Holy Spirit conception of "the Son of God" who would be named Jesus (Lk. 1:26-35). And here in today's Bible passage we find an angel of the Lord telling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e Child who has been conceived in her is of the Holy Spirit" (v. 20). Even the wise men from the East received angelic direction warning them not to return to Herod and to take a different way home (see Mt. 2:12). And again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Joseph in a dream and told him, "Get up!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flee to Egypt, and remain there until I tell you; for Herod is going to search for the child to destroy Him" (Mt. 2:13).

The angels of the Lord definitely got involved with Jesus Christ. While Joseph was in Egypt,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saying, "Get up,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go into the land of Israel; for those who sought the Child's life are dead" (Mt. 2:20). As Joseph was going, he found out that Archelaus was reigning over Judea in place of his father Herod. He was scared to go there. So, an angel came back to him in a dream and gave him the right directions (see Mt. 2:22-23). And let's not forget the angel of the Lord who visited the shepherds in the field. The angel told the shepherds, "Do not be afraid;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which will be for all the people; for today in the city of David there has been born for you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Lk. 2:8-11). After his announcement,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appeared and praised Go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Lk. 2:13-14). Amen!

The angels that appeared concerning Christ's birth show us God's amazing involvement. Among all the different angelic appearances, I just want to talk about Joseph's experiences. Joseph came from the line of David. The Roman census required him to take Mary to Bethlehem, the home of David. Even her late pregnancy couldn't put off this necessary task. It's wonderfully strange how the Roman government got involved in God's miracle. Their terrible taxing laws forced poor Joseph to go to Bethlehem, his family's city. Once there, he found that the crowds had filled up all the affordable inns. Mary was ready to deliver, so Joseph located a stable and Jesus was born in a manger. Jesus came into this world taking on the limitations of humanity (Phil. 2:5-7). His humble beginnings continued throughout His earthly life, even to the point of death, death on a cross.

Righteous Joseph found out that he was engaged to a pregnant woman. This was a terribly sinful situation. The dreadful troubles of marrying a pregnant woman made him think of ways to call off the engagement. He thought about sending her secretly away. There were no simple answers. Hence, an angel appeared. The angel called to him,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e Child who has been conceived in her is of the Holy Spirit" (v. 20). But how could a virgin be pregnant? This whole scenario had too many problems. It was too hard to believe. Joseph only knew that an unmarried pregnant woman was a horrible, inexcusable sin. But the angel mentioned the most holy of holy pregnancy. Joseph's initial reacion to Mary's condition was that it was sinful, but now it was sacred and sanctified. Sin should bring death to Mary, but Mary's condition wasn't sinful, it was going to bring deliverance. Her good name would have been ruined by what was thought to be sin, but instead, it was immortalized. Because of what people thought was her sin, they would have all called her bad, but instead she is called blessed. What a significant appearance the angels did make. What an important show of faith Joseph had in trusting the angel's message. What a crucial point it is for us to obey and practice our faith in relation to this situation and environment.

Miracles upon miracles happened concerning the birth of christ. The birth of the Savior was to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Everything that was prophesied about his birth in the Old Testament was fulfilled. Even Isaiah's prophecy,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Immanuel", was absolutely necessary (Is. 7:14). Christ's miraculous birth makes possible the "new" birth. The application of the angels' messages has blessed this earth both then and now. Do things seem to be stacked against you, with no way out? God will meet you where you are, even in your despair. The Good News of the Savior's birth, which the angels brought, is for you. Be humble and choose to listen. Listen to the Holy Spirit; just like Joseph did, then like Joseph, you too will meet the Savior. Obey His commands and you will receive life eternal. This awesome good news is for you. Amen.

다음 주일 설교

천사의 출현

(마 1:18~25)

"…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

김성관 목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신약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곧바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합니다(1절). '다윗의 자손'은 그 시대에 있어서 매우 대중적인 메시아적 칭호였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나타내는 매우 친근한 종교적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면 그들 역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저주를 받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축복에 실제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를 증명하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침묵과 언약

구약성경의 '말라기'로부터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백년간의 침묵의 시기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인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원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포로신세가 되었다가 다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래도록 예언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천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현재와 미래에 연결시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들의 출현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해서 여러 천사가 출현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사가랴'의 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가는 자'가 될 것을 말하려고 '사가랴' 앞에 나타났습니다(눅 1:11~17).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불리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눅 1:26~35). 그리고 오늘의 성경본문에서 우리는 주의 천사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마 1:20).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를 만나고 난 후,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천사들의 경고와 지시를 받습니다(마 2:12). 그리고 다시금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마 2:13).

천사들의 지시

주의 천사들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 주의 천사는 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마 2:20). 요셉이 이스라엘로 가던 중에, 그는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로 돌아와서 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었습니다(마 2:22~23). 또한 들에 있던 목자들을 방문했던 주의 천사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눅 2:8~11).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11). 이러한 선언 후에, 홀연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섭리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나타났던 천사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각각의 천사의 출현들 가운데, 이제 요셉의 경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은 인구조사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만삭된 상태였을지라도 로마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로마 정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놀랍도록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끔찍스럽게도 사람을 고생시키는 로마의 법은 가난한 요셉을 강제로 그의 가족들이 사는 도시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자신들이 머물기에 적당한 여관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곧 분만할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마굿간에 머물게 되었으며, 마침내 '예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겸손의 극치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빌 2:5~8). 이러한 주님의 겸손의 시작은 세상에서 살아가신 순간순간마다 지속되었으며,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죄로 가득한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두려운 근심은 그로 하여금 약혼을 취소하는 방법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멀리 보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을 불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마 1:20). 하지만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상황들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요셉'은 단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임신은 소름끼치도록 싫고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사실을 지극히 거룩한 잉태라고 언급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요셉'이 보인 최초의 반응은 마리아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으나, 천사의 방문 이후로는 그 일이 신성하고 성결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죄로인한 것이라면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었으나, 실제로 마리아의 임신은 죄로인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녀의 임신은 구원을 이끌어 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임신이 죄라고 생각함에 따라서는 그녀의 선한 이름이 파멸을 연상케 하는 것일 수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영원함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함으로 그녀를 나쁘게 부를 수 있지만, 그녀는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불려집니다. 천사들의 출현이 만들어낸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요셉이 보인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심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요건은 요셉처럼 상황과 형편에 관하여 믿으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만나주시는 구세주

기적 중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계시된 그의 탄생에 관한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은 '새로운 피조물'로의 탄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는 천사들의 메시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떠한 것이 변함없이 커다란 근심으로 여러분을 대항하여 쌓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좋은 소식,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은 여러분을 위한 소식입니다.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요셉과 같이, 여러분은 구세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은 여러분을 위한 소식입니다. 아멘.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루마니아

9교구 단기선교팀

(12월 18일~12월 27일)
뿔로이에슈티, 부저우

1. 모든 팀원들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2. 어린이 사역을 통해 그 부모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 정교회라는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루마니아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에바다부 단기선교팀
(12월 17일~12월 24일)
알마타

1. 지난 7월에 농아인 협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2. 팀원들이 카자흐스탄 수화를 잘 배우고 성령 충만하여, 알마타에 사는 새로운 농아들을 축호 방문하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3. 선교 집회 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스리랑카

2교구 단기선교팀
(12월 17일~12월 27일)
담불라, 아누라다푸라, 푸탈람 지역

1. 모든 대원들이 먼저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도록.
2. 아누라다푸라에서 이뤄지는 어린이 사역을 통해 스리랑카인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3.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보다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부서	사역지	날 짜
6교구	스리랑카	12월 10일~12월 19일
5교구	우즈베키스탄	12월 10일~12월 18일
15교구	우즈베키스탄	12월 10일~12월 18일
12교구	카자흐스탄	12월 10일~12월 17일
13교구	인도	12월 12일~12월 20일
장년1부	인도	12월 12일~12월 20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16교구 단기선교단이 지난 주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선교단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 내려 자라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자.*

예수님의 전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고전 9:19~22)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따랐던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먼저 전도의 대상을 파악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대상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가리지 않고 모두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시고 또 그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식이 많은 니고데모에게, 부를 가진 세리 삭개오에게, 천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각각 다르게 대하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전도하거나 제자화로 삼으려는 상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고기잡이 베드로에게는 고기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늘 영생의 고민에 빠져있던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상대의 문제와 고민, 그리고 지적, 감정적 수준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천한 자에게는 천한 자처럼, 배운 자에게는 배운 자처럼 대한다는 이 말씀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식이 높은 자에게 학적으로 말씀을 접근하도록 지식도 있어야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가난한 자의 삶과 고민을 이해할 만한 이해력과 지식과 경험이 또 필요합니다.

둘째,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런 자에게는 이렇게, 저런 자에게는 저렇게 하라는 그 말씀은 그들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다 함께 하셨지만, 자신이 전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육적 할례를 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거룩한 안식일임에도 병자를 고치신 주님은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 혹은 인간들이 정해 놓은 율법과 전통의식들은 묵과 하셨지만, 진리를 전하는 데는 결코 양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바울도 감옥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 오직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내어 놓으신 주님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절대로 우리의 수준에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종교적 율법주의나 권위주의적 습관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선부지도 김황근 목사)

2003년도 1차 단기선교 설명회
(선교위원회 주관)

1. 일시 : 12월 15일
2. 시간 : 찬양예배(제직회) 후
3. 장소 : 갈릴리홀
4. 대상 : 교역자, 장로, 2003년도 팀장(각 지역장), 안수집사, 기타

【2003년도 서리집사 명단】

1교구

◈ 남집사

95-1661 강길원 86-558 강연구 91-224 강건석 89-1045 강임구
95-1318 김경록 4688 김공식 2787 김도현 90-318 김동철
89-598 김명중 90-293 김봉호 87-554 김상동 94-1925 김성택
89-979 김승규 89-111 김정찬 84-1051 김종린 84-1051 김지형
92-798 김철중 3411 박광석 83-20 박동회 82-601 박태근
3411 박관수 82-601 박해권 86-645 박희석 86-142 백봉학
90-960 서영조 91-1223 서지석 93-1054 성문현 85-829 송용옥
85-606 양근식 84-806 양창근 90-88 염낙서 4265 유지철
86-126 윤선한 82-601 이무열 86-775 이병구 84-612 이상용
350 이상재 99-935 이용수 87-734 이인배 98-1228 이재관
88-816 이진수 199 이진수 89-596 이찬제 98-981 이철용
84-909 이현상 90-530 임형호 94-19 장동억 88-963 장영수
88-706 전삼진 85-926 정 건 98-757 정인옥 3120 정조영
87-9 조봉석 2851 조창선 4675 지영일 91-1231 최계열
95-124 최규태 95-232 최세진 94-1297 최승민 85-794 최준석
86-422 허남철 89-207 홍긍호 94-585 홍순길 93-121 홍종헌
88-717 황선용

◈ 여집사

86-126 강신순 91-1009 강 옥 90-530 강옥련 87-443 강종예
88-233 강준자 88-940 곽노경 89-111 권미예 89-399 김경성
88-53 김경숙 81-487 김경순 89-979 김경순 89-1045 김남옥
84-722 김미자 96-188 김성아 87-9 김송자 86-447 김순자
91-381 김승희 84-909 김신희 97-672 김영란 87-820 김영숙
92-611 김영춘 89-994 김영희 499 김영희 85-150 김월자
90-915 김은경 96-150 김은자 91-311 김점례 89-34 김정수
84-617 김춘자 83-617 김춘자 91-1231 김행자 89-1528 김현경
89-1421 김희순 93-1522 김희선 95-1543 김희수 85-829 남경자
93-1020 남주옥 90-293 문미선 96-752 문영숙 95-1417 박경희
88-244 박민숙 90-259 박봉연 94-1925 박연숙 94-1297 박인정
87-80 방희정 87-734 배정숙 94-585 백인숙 98-1225 서혜정
88-1053 소상훈 80-166 손공님 89-598 송윤전 89-1413 신동옥
81-956 신명자 86-138 심필순 84-839 심호섭 88-717 안경자
85-519 양삼순 97-565 양정숙 91-224 엄유선 84-806 엄진이
91-762 염명숙 92-103 오승민 91-1134 우병희 89-707 유정자
92-301 윤순희 94-724 윤영순 95-124 윤효순 99-935 이경순
87-711 이경순 88-194 이국숙 98-981 이명숙 95-232 이명희
87-531 이병현 86-125 이숙희 84-595 이양호 362 이영화
93-1054 이영희 91-1241 이옥영 89-596 이정미 90-318 이정미
84-912 이정옥 88-1048 이정자 191 이정헌 86-822 이현순
98-757 이혜경 95-162 이화향 90-88 임대여 85-335 임문자
86-422 임애규 92-179 임동개 87-503 장순양 82-115 장진옥
85-794 전춘옥 90-223 정송향 88-706 정연숙 80-476 정영례
84-612 정옥화 87-59 정정순 92-798 정희선 81-272 조경순
95-44 조경애 89-207 조복선 90-960 조정희 84-406 천수자
89-120 최금중 83-684 최명옥 91-288 최송자 2787 최은희
92-394 최자영 91-272 최종란 88-516 최천숙 95-204 태일희
4675 홍인숙 92-1174 황진순

2교구

◈ 남집사

91-1020 강남석 95-236 강두형 92-303 강홍선 86-94 고찬석
79-336 권석정 84-1221 김건열 91-1201 김광세 92-1582 김광주
95-191 김대성 87-10 김배규 80-719 김성용 90-908 김양경
88-20 김영권 87-268 김은석 1300 김인규 95-1762 김장언
2000-0447 김재범 93-1271 김지철 85-348 김창기 96-1113 김철호
84-492 김학준 1644 김현식 98-637 김형기 88-1019 김홍래
92-614 류동원 93-1872 문상식 95-11 문홍무 1865 박남수
2299 박승배 88-854 박재근 93-764 박창대 84-865 배봉식
91-108 서대식 99-493 손성환 88-627 송근태 4992 신우재
84-133 신진수 91-764 신진길 88-818 신철우 85-151 심재서
96-739 안세현 94-877 안준모 84-233 양승길 90-1035 양현중
88-905 여운승 92-501 오규종 79-340 오수호 4974 유국철
95-680 유병수 298 유인규 2386 윤송남 83-669 윤순규
87-27 윤해균 1140 이광렬 96-1223 이균우 87-682 이두희
82-755 이봉주 91-292 이성욱 96-468 이수형 676 이승구
89-840 이승봉 84-532 이시형 92-1040 이은교 82-744 이정관
84-532 이종택 96-593 이종필 85-820 이중한 99-247 이채형
97-142 이희범 89-71 장경문 99-1134 장상원 2001-0273 장재성
81-914 장창화 685 정기원 93-2 정동석 3685 정위식
98-949 정찬용 92-87 조윤성 90-521 조인형 84-40 조홍연
82-466 주영면 81-845 최문홍 87-331 최한태 89-485 한상재
88-505 현봉석

◈ 여집사

80-756 강기옥 89-1315 강혜숙 95-812 곽준이 85-43 권정자
85-348 김경숙 80-719 김경희 92-178 김귀자 97-608 김길상
98-122 김동심 88-1019 김명숙 92-87 김명순 97-902 김미라
95-73 김미연 93-676 김미영 79-368 김봉애 80-745 김성숙
84-492 김성은 93-1271 김성자 4835 김수자 87-268 김순옥
86-94 김순자 86-428 김애순 85-735 김연순 92-1413 김연화
91-292 김연희 93-2 김영례 90-586 김영자 4814 김옥선
89-29 김옥순 3685 김옥희 95-1464 김유정 91-1031 김은숙
82-744 김정선 82-755 김정순 91-316 김정자 89-96 김종란
79-578 김지순 88-627 김현정 94-282 김혜란 298 김혜원
87-682 김혜정 90-522 김화자 91-981 김희성 95-11 나성애
90-1035 나춘애 92-1727 노희례 79-84 동지현 89-64 류태숙
92-1117 문해순 84-1050 문용자 88-20 문인란 89-608 문 희
92-1582 민혜선 92-614 박경례 90-802 박덕순 95-191 박명자
92-1291 박복순 99-609 박수인 93-1872 박순희 89-190 박영숙
86-449 박옥자 79-526 박현숙 89-178 방명자 93-945 방영미
95-14 방진수 88-725 서경희 84-532 서미라 88-905 서정희
98-853 서진희 90-908 손미영 89-1081 손은숙 99-608 시경희
99-493 신양수 90-1013 신혜영 82-586 심인식 79-230 심인주
84-696 심혜식 88-771 안신자 1908 안정민 295 안준영
96-1113 안중남 2363 안지영 4007 여갑선 89-71 오선희
81-792 오숙영 89-719 오양옥 95-1237 오연애 1140 오영혜
93-117 오혜숙 91-275 유금선 93-552 유복심 96-739 유순원
85-151 유승자 88-818 유용숙 3081 유인숙 94-846 유제일
1868 유혜숙 88-560 윤 순 86-539 윤이임 93-114 윤재심
99-247 윤효남 97-435 이기옥 87-331 이명옥 89-840 이명희
93-116 이수선 90-392 이순민 92-303 이승연 92-501 이영경
88-941 이영숙 81-914 이영희 84-1173 이영희 4974 이옥숙
84-233 이옥자 84-1221 이옥희 89-1095 이은숙 95-680 이재숙
91-316 이혜란 88-837 임채운 85-15 장문자 85-284 장숙자
676 장정연 94-877 정경진 84-1305 정복순 84-40 정순옥
87-10 정옥선 98-1077 정은희 95-1762 정화순 91-764 정희자
91-703 조미순 4160 조순남 88-19 조순호 89-337 조연경
92-1040 조윤정 84-865 조정희 98-949 조태숙 89-674 주순희
91-1020 차혜숙 1644 천희정 92-715 최근준 86-838 최난영
83-669 최명희 96-1217 최명희 88-415 최세화 88-729 최수자
95-1223 최영혁 90-521 최지선 80-848 최태분 92-1228 최혜자
84-1280 한박선 91-1201 한은주 2299 한홍래 95-236 허미자
85-754 황명하 89-485 황정희

3교구

◈ 남집사

93-617 강옥석 97-603 고경호 2000-0234 고인호 99-518 권승룡
89-825 권영돈 96-1178 권혁원 88-587 김기수 82-285 김덕호
2844 김상득 98-635 김성진 93-142 김세종 92-597 김수현
87-375 김승기 97-114 김시영 82-290 김영연 84-232 김오근
96-327 김옥권 82-395 김윤섭 89-572 김응수 93-329 김종관
97-369 김주호 95-74 김현웅 95-1597 김홍열 85-639 김희동
89-609 김희식 94-230 노영철 94-1193 민청식 86-95 박광조
86-45 박남주 89-1329 박병덕 93-946 박성환 88-894 박용한
79-246 박준배 92-1256 성 중 89-1229 신동수 97-175 안지훈
94-624 엄홍섭 89-1556 유동호 90-55 유종윤 82-10 유홍수
91-377 윤병훈 87-619 이강홍 97-417 이경재 2000-0020 이광현
90-330 이도현 92-795 이상문 95-183 이승민 94-626 이영재
81-126 이원식 91-373 이재철 87-85 이정태 2842 이준식
81-330 이중환 93-1759 장기락 85-531 장상길 2002-0215 장석두
95-655 장수명 87-720 조낙준 89-1520 조휘남 89-90 최경운
94-280 최경철 95-190 최광현 86-640 최성철 91-597 최영철
94-369 최영학 2966 최종배 90-608 최종순 83-62 최형주
98-1183 현현석 2000-0389 황경석

◈ 여집사

84-651 강권순 89-90 강명옥 89-1329 강순용 97-806 강여경
93-1012 강영숙 87-599 강은희 86-553 강혜영 84-1116 고남분
86-178 고순덕 89-1483 고윤희 82-648 구명숙 96-694 권필남
89-609 권혜연 98-931 길은배 91-820 김기남 95-1597 김명은
95-1166 김미연 86-45 김보옥 4295 김복자 95-1329 김성희
85-978 김숙자 92-1029 김순선 86-396 김순자 98-1183 김애자
2966 김영구 89-591 김영락 93-589 김영주 92-795 김영희
82-290 김예순 94-158 김월옥 80-262 김유순 97-603 김은주
98-690 김인숙 95-183 김정숙 93-142 김정원 90-380 김정자
85-531 김향신 90-256 김형미 90-436 김형숙 94-230 김효정
90-1018 라기숙 91-469 류순옥 84-1236 류향란 94-573 박경숙
90-834 박미향 90-608 박선향 2000-0389 박성애 92-1208 박성자
83-526 박애영 89-1294 박인애 94-626 박정복 85-776 박정애
87-720 박찬숙 82-456 박춘자 93-283 박태순 96-327 박희수
84-913 백광자 84-913 백광희 2002-0215 백정숙 81-330 백혜옥
94-369 백희자 91-456 변재규 96-1178 부경란 87-85 서경희
99-518 서순석 97-114 선혜영 89-1144 설진희 81-145 성명선
4472 손일생 198 송미경 82-656 송병전 86-490 송선옥
198 송윤경 99-299 송정숙 198 송진경 83-415 송희명
3199 심정례 97-797 안명숙 98-226 안혜영 94-334 안화순
2000-0020 양순자 88-601 오순영 88-587 오정림 91-377 원영주
79-246 유명례 85-313 유은희 97-369 유정희 2842 유혜숙
96-360 육지수 83-620 윤병순 98-635 윤일자 87-375 이경미
88-620 이경자 89-1556 이규숙 5074 이명순 84-230 이미애
94-280 이봉선 95-74 이상미 80-118 이설희 95-1786 이수자
94-1018 이순득 93-1759 이옥경 82-285 이옥순 93-329 이월산
88-507 이정숙 85-639 이정애 79-109 이정운 94-545 이정화
91-373 이정희 94-1955 이현례 89-1422 이혜경 97-336 이혜영
93-617 이 화 99-155 이희분 97-417 이희자 94-1342 임금숙
84-232 임길영 2000-0234 임미숙 89-1229 임현숙 79-446 전명식
3990 전봉자 87-81 전옥순 86-640 정명주 93-946 정미순
94-1193 정병희 86-287 정순경 92-597 정유진 94-1086 정재선
91-948 정정자 80-808 정정한 91-422 정필조 99-331 주기숙
5083 주영자 95-655 차옥진 89-1520 최복희 93-687 최순현
98-1166 최영애 94-781 최의식 88-973 최정자 94-683 한순옥
83-62 함경애 92-1256 허종숙 89-825 홍은기

4교구

◈ 남집사

82-596 강인수 90-307 강일천 93-964 강형규 89-228 강호원
89-252 곽태식 87-591 권오준 86-141 권중철 85-661 김 광
86-259 김규식 96-164 김기주 79-52 김남성 81-996 김태진
90-383 김석제 91-1224 김선기 1288 김상옥 82-462 김영진
91-444 김영찬 95-613 김용화 4818 김원주 85-614 김인평
92-770 김일중 91-500 김재종 93-1263 김정익 1717 김제건
83-392 김종일 86-783 김주헌 2181 김진섭 92-1725 김진홍
89-78 김찬욱 91-131 김춘광 93-43 김충진 1442 김홍배
89-109 나승은 81-729 노정화 86-639 류정열 94-2006 박건일
80-739 박상철 92-757 박영철 95-1085 박용인 81-900 박원화
80-295 박인영 95-525 백종운 94-1183 서광율 89-1023 서동은
91-529 선명환 86-187 소두영 91-27 송병욱 92-1370 송봉섭
80-41 송석주 5113 송영주 93-211 송중석 94-1323 신명훈
5238 신영창 95-480 신창훈 91-106 심창영 91-944 안연식
90-912 양희창 92-1326 염종섭 80-358 오준근 3439 옥인수
93-1121 우진환 94-136 유인채 89-746 유종석 91-532 유형근
90-291 윤석헌 93-528 이기문 91-487 이동석 88-968 이동성
85-900 이명권 97-70 이병근 95-1385 이상돈 91-48 이석묵
1381 이용재 91-685 이인용 81-777 이재송 79-9 이혁수
89-670 이호연 93-1022 이화우 80-634 임순배 89-1518 장병택
2801 장석환 91-1197 장세기 87-844 정갑생 86-578 정대원
90-481 정봉화 93-143 정성홍 84-589 정환모 98-623 정지태
95-137 정창일 93-266 조명호 85-241 조찬수 93-295 조한주
85-240 조형수 85-454 주영선 87-778 채홍표 95-18 최민석
83-158 최성조 87-811 최원길 86-349 최종욱 4624 한무부
87-249 허 석 95-100 황석환 95-422 황순오 80-136 황충종

◈ 여집사

4624 감정자 97-70 강경순 89-109 강길례 92-700 강미숙

2003년 일꾼 명단

79-52 강 순
85-94 곽숙단
93-88 김경남
92-1725 김규복
89-746 김명선
94-1560 김미덕
89-78 김성숙
81-446 김수남
86-248 김영옥
91-529 김유정
85-552 김정례
89-670 김혜옥
3264 노재희
83-73 박미순
82-462 박정옥
85-241 박혜영
91-48 송경희
92-38 신영은
93-43 심영희
87-811 안순복
2000-0239 오귀봉
95-18 우숙영
85-264 유영례
93-440 윤숙상
83-158 이귀남
89-228 이미경
80-76 이상옥
86-187 이영순
95-1740 이 정
91-500 이장순
91-693 이혜주
93-1022 임명희
89-114 장업선
95-499 전동여
90-912 정태옥
92-770 조윤숙
93-77 진옥란
91-163 최복례
90-164 최유경
92-1326 한기희
97-300 홍애자

80-812 강정희
93-1121 구병남
92-956 김경숙
94-2006 김태옥
91-1125 김명환
90-481 김미경
92-1740 김미경
96-164 김보희
89-536 김성자
91-532 김순애
79-370 김영은
90-947 김은자
81-777 김정순
93-72 나근숙
93-211 마리나
91-685 박복숙
95-552 박정희
87-778 변혜숙
91-444 송여주
81-1004 신정순
85-153 안모순
95-137 안영옥
86-578 오명자
85-240 원용숙
90-825 유영자
3439 윤숙자
95-956 이금숙
5345 이순옥
94-1000 이옥자
90-739 이정숙
757 이춘재
975 이효순
89-533 임선영
89-291 장은순
95-613 전혜숙
82-52 조숙임
88-933 주영희
95-480 채은선
95-1385 최수복
3136 추순옥
86-245 허은숙
1442 홍원희

94-1340 고길순
92-506 궁미경
91-254 김경숙
89-1335 김란희
90-481 김미경
91-131 김인숙
89-252 김정운
86-349 나희대
86-325 마현미
91-944 박순복
84-589 박종인
93-610 서갑석
93-964 신란호
90-383 신춘희
93-1332 안상희
97-315 양옥희
87-156 오명자
94-1957 이미주
92-1380 이순옥
92-783 이옥희
91-800 유춘남
94-1323 이경림
85-954 이명숙
94-1957 이미주
92-1380 이순옥
92-783 이옥희
94-136 이종희
87-653 이춘희
93-411 임경자
92-751 장득경
92-1370 장혜경
91-1197 정영자
92-1339 정춘자
82-52 조숙임
87-249 조영란
88-933 주영희
91-163 지영순
95-480 채은선
95-1385 최수복
86-245 허은숙
92-956 홍원희
95-525 홍점순

515 고순산
91-487 권경애
90-634 김공심
90-634 김란희
5238 김말순
91-871 김광수
98-52 김명진
93-773 고희봉
91-996 김선옥
80-358 김수경
93-1263 김신애
86-89 김영혜
3188 김임순
94-999 김혜숙
87-509 노경숙
4818 박길녀
91-944 박순복
90-1916 김미경
92-1740 김미경
334 김봉숙
91-871 김광수
98-52 김명진
93-773 고희봉
91-996 김선옥
80-358 김수경
93-1263 김신애
86-89 김영혜
3188 김임순
94-999 김혜숙
87-509 노경숙
4818 박길녀
91-944 박순복
1717 박숙애
90-1916 김미경
2998 박진민
1381 손명민
93-964 신란호
80-41 신행길
90-383 신춘희
93-1109 신혜옥
93-392 안숙영
87-625 연경애
93-1812 유경희
96-731 유미향
90-807 윤경자
93-1519 이광자
95-100 이명순
86-639 이복경
92-845 이영숙
92-783 이옥희
91-753 이재훈
90-307 윤경자
93-1519 이광자
95-100 이명순
86-639 이복경
92-845 이영숙
92-783 이옥희
91-753 이재훈
90-307 윤경자
95-301 이주영
95-253 이향선
95-422 임명자
82-566 전길복
92-1339 정춘자
87-849 조영란
93-266 장혜교
92-566 전길복
93-1821 최혜자
95-900 하혜인
91-906 허철생
86-259 황영림

5교구

◆ 남김사

98-1081 강영기
91-872 김광수
91-996 김선옥
92-1743 김명희
84-431 황방자

95-367 고배식
95-969 권백용
94-810 김기옥
96-208 김영모
4086 김용조
87-632 김종옥
89-963 김희준
89-1014 김정희
95-402 남준자
92-820 문성애
94-1995 박영숙
97-836 박정희
97-243 배희숙
97-871 변춘길
95-273 석은영
770 신은숙
88-950 엄순애
84-534 유강자
98-1081 윤경희
88-629 이경자
88-397 이명애
88-169 이선화
91-871 이윤희
95-594 조영희
97-568 최윤혜
89-578 최현숙
92-1743 홍명희
84-431 황방자

92-1108 고영순
94-1908 김미리
92-377 김신순
87-643 김영옥
87-168 김용열
94-1031 김인영
91-317 김지연
93-1773 김화영
95-402 남준자
92-820 문성애
94-1995 박영숙
97-836 박정희
97-243 배희숙
97-871 변춘길
95-273 석은영
92-1742 소금영
89-528 심기남
88-950 엄순애
84-534 유강자
98-1081 윤경희
88-629 이경자
88-397 이명애
88-169 이선화
91-871 이윤희
95-594 조영희
97-568 최윤혜
89-578 최현숙
92-1743 홍명희
84-431 황방자

6교구

◆ 남김사

83-514 강석인
83-520 김광호
95-667 김만기
82-527 김병익
89-1230 김익현
89-875 김종학
85-562 김학은
86-731 김홍우
91-857 민동명
94-988 박병옥
91-52 박석산
80-504 백선엽
96-909 손영옥
88-965 신광식
95-619 오필선
95-688 윤성열
96-57 이근우
92-319 이보한
89-421 이연구
93-1884 이창영
91-372 전돈석
1260 정수일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67 고재선
93-1302 김 근
92-1630 김만수
93-9 김성상
97-89 김재기
90-350 김지찬
82-69 김현근
84-1274 나종원
92-1427 박규철
89-333 박병후
888 박운택
91-128 변성주
87-742 송영상
94-1111 안병택
85-299 우종호
90-1015 윤여병
90-1009 이동욱
89-1789 이석재
80-316 이영균
86-314 임병준
89-736 정영재
479 전세종
86-172 조용수
90-527 최규환
91-319 최창길
91-68 한용택
84-901 황민성

91-412 고재훈
98-611 김덕은
88-153 김병상
89-711 김재윤
94-1612 김진목
80-527 김현철
92-70 노충헌
88-539 박규철
2861 박상철
90-1060 박현웅
84-1231 변인식
93-254 송차영
91-127 여완구
91-598 유원현
89-726 이상우
4536 이정기
94-1201 장경옥
1568 장관이
93-1086 전연숙
95-66 정경심
91-1181 조원국
5364 최승윤
95-1376 하종건
99-965 한원규
94-640 황하봉

92-1737 공석두
82-531 김동의
492 김병수
95-569 김영길
95-8 김정배
88-889 김진식
96-286 김형조
95-356 류정걸
98-1199 박노용
96-418 방창석
85-157 서석태
96-620 오춘성
95-150 유정범
81-1002 장세용
1971 정상주
90-622 조동석
88-393 조재순
85-432 최용길
86-371 하종건
93-1414 정난주
91-415 정옥점
83-514 조균실
85-157 최복순
91-609 최영랑
89-1253 최정옥
94-69 허준화
90-527 황치회

88-747 구영회
87-350 김 란
99-211 김선향
98-425 김언정
94-156 김옥순
92-1488 김희진
91-1068 김정희
99-329 김현자
89-692 남옥순
90-159 류동숙
89-866 박병순
79-485 박임순
93-89 배진형
99-364 변인원
84-72 서인순
94-729 신경애
91-695 안현희
93-1102 오정혜
93-732 유현순
89-1114 윤자옥
90-882 이명숙
95-120 이분옥
95-125 이윤경
89-750 이정희
89-688 임복례
92-656 장금자
89-1115 전재숙
89-981 최옥현
94-923 정연희
88-1054 정정임
94-498 현광자
97-178 홍정예

7교구

◆ 남김사

87-125 갈칠로
93-992 곽홍문
89-416 김규태
87-821 김성진
90-518 김용진
90-877 김종서
5287 나상열
247 박명호
94-1987 박학근
234 설규동
84-921 엄종배
79-182 유진규
94-857 이기남
95-845 이상림
98-397 이옥렬
79-255 이종성
86-841 이철호
3102 호수
91-18 장동석
97-689 장은열
94-1359 정중현
91-674 조정달
88-254 한득수
86-143 홍탁성

79-234 강신호
91-732 권경원
83-573 김근호
92-481 김영진
2860 김월성
99-11 김종흡
86-497 박기용
93-1914 박재빈
79-352 백남제
98-1161 손희국
82-79 오병두
92-1321 윤병석
95-1527 이기옥
95-1527 이기옥
90-538 이상복
84-695 이윤섭
89-1093 이평희
4-136 장석
96-561 장병준
97-1269 장은열
2000-0852 정연택
92-747 정철인
95-1264 한완수
40 황일호

96-540 강천석
83-42 권영신
81-921 김동삼
90-247 김용대
84-1241 김정호
92-1244 김창규
98-771 박대근
96-1136 박종각
92-1680 송정권
99-1078 오정성
85-919 윤종극
86-530 이남현
96-24 이승익
91-1112 이일섭
89-1080 김부예
89-416 김숙자
93-992 김옥연
85-172 김은양
92-371 김정은
88-774 김지선
92-1321 김진화
89-581 김화순
96-24 도미숙
92-125 박선아

93-651 곽상조
2001-0380 김광선
82-273 김민구
91-608 김용의
86-272 김종국
99-158 김창수
90-490 박충근
93-1730 서정권
4569 심보현
98-995 오태화
98-1172 이경환
79-96 이동희
82-183 이신동
89-324 이재호
90-1066 이창율
97-342 이형준
98-1168 임홍섭
81-404 장소봉
88-907 정일섭
84-1171 조원일
1419 한덕구
83-473 허정호

93-651 박재순
92-1630 김은주
89-18 김정옥
82-592 김혜경
91-319 남상겸
84-1274 류호성
93-1330 박경자
86-886 박영옥
82-378 변경심
83-45 서기순
82-208 심금숙
97-89 안재자
83-312 엄선자
84-1231 오현숙
91-372 유길자
4536 유필여
91-259 이강숙
83-641 이묘남
85-432 이수자
91-128 이순영
88-539 이영숙
91-68 이정희
93-1008 이필순
80-527 이희자
89-1230 임진순
92-1232 전부자
91-412 정옥임
88-774 정지선
91-128 정효륜
85-58 주혜연
96-909 최숙희
95-1130 최영자
5227 함봉애
82-435 황순란

8교구

◆ 남김사

98-1081 장영기
90-24 공병식
89-54 김광은
90-573 김영규
91-871 김윤문
94-1031 김정홍
84-1284 김형종
93-1725 문창식
92-1498 박만형
86-455 박종운
89-750 백봉선
93-1798 송재혁
89-1115 안상이
90-882 오세익
89-1500 유희복
95-273 차상옥
92-433 최우근
92-664 홍금성
95-189 황순선

95-367 고배식
89-969 권백용
94-810 김기옥
96-208 김영모
98-965 김희준
88-397 노규식
89-1014 김정희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08 고영순
94-1908 김미리
92-377 김신순
87-643 김영옥
87-168 김용열
94-1031 김인영
91-317 김지연
93-1773 김화영
95-402 남준자
87-731 노승연
90-217 박경희
94-1995 박영숙
91-1090 박영익
97-836 박정희
92-338 박혜성
86-376 백애순
94-1972 서옥선
92-1742 소금영
89-528 심기남
89-54 오경숙
90-24 유명희
87-431 윤부기
92-334 이경희
82-140 이무순
87-689 이영숙
95-1238 이정선
85-969 임경순
89-870 임학선
95-1420 장순옥
90-847 정상임
93-1798 정영자
90-404 조옥련
88-257 최종란
89-963 한주연
84-977 홍성순

91-1238 곽계자
93-1725 길정례
99-211 김선향
91-821 김미진
98-425 김언정
94-156 김옥순
92-1488 김희진
91-1068 김정희
99-329 김현자
89-692 남옥순
90-159 류동숙
89-866 박병순
79-485 박임순
93-89 배진형
87-632 변옥선
94-156 서은옥
94-729 신경애
91-695 안현희
93-1102 오정혜
93-732 유현순
89-1114 윤자옥
90-882 이명숙
95-120 이분옥
95-125 이윤경
89-750 이정희
89-688 임복례
92-656 장금자
89-1115 전재숙
89-981 최옥현
94-923 정연희
88-1054 정정임
94-498 현광자
97-178 홍정예

9교구

◆ 남김사

83-514 강석인
83-520 김광호
95-667 김만기
82-527 김병익
89-1230 김익현
89-875 김종학
85-562 김학은
86-731 김홍우
91-857 민동명
94-988 박병옥
91-52 박석산
80-504 백선엽
96-909 손영옥
88-965 신광식
95-619 오필선
95-688 윤성열
96-57 이근우
92-319 이보한
89-421 이연구
93-1884 이창영
91-372 전돈석
1260 정수일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67 고재선
93-1302 김 근
92-1630 김만수
93-9 김성상
97-89 김재기
90-350 김지찬
82-69 김현근
84-1274 나종원
92-1427 박규철
89-333 박병후
888 박운택
91-128 변성주
87-742 송영상
94-1111 안병택
85-299 우종호
90-1015 윤여병
90-1009 이동욱
89-1789 이석재
80-316 이영균
86-314 임병준
89-736 정영재
479 전세종
86-172 조용수
90-527 최규환
91-319 최창길
91-68 한용택
84-901 황민성

91-412 고재훈
98-611 김덕은
88-153 김병상
89-711 김재윤
94-1612 김진목
80-527 김현철
92-70 노충헌
88-539 박규철
2861 박상철
90-1060 박현웅
84-1231 변인식
93-254 송차영
91-127 여완구
91-598 유원현
89-726 이상우
4536 이정기
94-1201 장경옥
1568 장관이
93-1086 전연숙
95-66 정경심
91-1181 조원국
5364 최승윤
95-1376 하종건
99-965 한원규
94-640 황하봉

92-1737 공석두
82-531 김동의
492 김병수
95-569 김영길
95-8 김정배
88-889 김진식
96-286 김형조
95-356 류정걸
98-1199 박노용
96-418 방창석
85-157 서석태
96-620 오춘성
95-150 유정범
81-1002 장세용
1971 정상주
90-622 조동석
88-393 조재순
85-432 최용길
86-371 하종건
93-1414 정난주
91-415 정옥점
83-514 조균실
85-157 최복순
91-609 최영랑
89-1253 최정옥
94-69 허준화
90-527 황치회

10교구

◆ 남김사

98-1081 장영기
90-24 공병식
89-54 김광은
90-573 김영규
91-871 김윤문
94-1031 김정홍
84-1284 김형종
93-1725 문창식
92-1498 박만형
86-455 박종운
89-750 백봉선
93-1798 송재혁
89-1115 안상이
90-882 오세익
89-1500 유희복
95-273 차상옥
92-433 최우근
92-664 홍금성
95-189 황순선

95-367 고배식
89-969 권백용
94-810 김기옥
96-208 김영모
98-965 김희준
88-397 노규식
89-1014 김정희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08 고영순
94-1908 김미리
92-377 김신순
87-643 김영옥
87-168 김용열
94-1031 김인영
91-317 김지연
93-1773 김화영
95-402 남준자
87-731 노승연
90-217 박경희
94-1995 박영숙
91-1090 박영익
97-836 박정희
92-338 박혜성
86-376 백애순
94-1972 서옥선
92-1742 소금영
89-528 심기남
89-54 오경숙
90-24 유명희
87-431 윤부기
92-334 이경희
82-140 이무순
87-689 이영숙
95-1238 이정선
85-969 임경순
89-870 임학선
95-1420 장순옥
90-847 정상임
93-1798 정영자
90-404 조옥련
88-257 최종란
89-963 한주연
84-977 홍성순

91-1238 곽계자
93-1725 길정례
99-211 김선향
91-821 김미진
98-425 김언정
94-156 김옥순
92-1488 김희진
91-1068 김정희
99-329 김현자
89-692 남옥순
90-159 류동숙
89-866 박병순
79-485 박임순
93-89 배진형
87-632 변옥선
94-156 서은옥
94-729 신경애
91-695 안현희
93-1102 오정혜
93-732 유현순
89-1114 윤자옥
90-882 이명숙
95-120 이분옥
95-125 이윤경
89-750 이정희
89-688 임복례
92-656 장금자
89-1115 전재숙
89-981 최옥현
94-923 정연희
88-1054 정정임
94-498 현광자
97-178 홍정예

11교구

◆ 남김사

83-514 강석인
83-520 김광호
95-667 김만기
82-527 김병익
89-1230 김익현
89-875 김종학
85-562 김학은
86-731 김홍우
91-857 민동명
94-988 박병옥
91-52 박석산
80-504 백선엽
96-909 손영옥
88-965 신광식
95-619 오필선
95-688 윤성열
96-57 이근우
92-319 이보한
89-421 이연구
93-1884 이창영
91-372 전돈석
1260 정수일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67 고재선
93-1302 김 근
92-1630 김만수
93-9 김성상
97-89 김재기
90-350 김지찬
82-69 김현근
84-1274 나종원
92-1427 박규철
89-333 박병후
888 박운택
91-128 변성주
87-742 송영상
94-1111 안병택
85-299 우종호
90-1015 윤여병
90-1009 이동욱
89-1789 이석재
80-316 이영균
86-314 임병준
89-736 정영재
479 전세종
86-172 조용수
90-527 최규환
91-319 최창길
91-68 한용택
84-901 황민성

91-412 고재훈
98-611 김덕은
88-153 김병상
89-711 김재윤
94-1612 김진목
80-527 김현철
92-70 노충헌
88-539 박규철
2861 박상철
90-1060 박현웅
84-1231 변인식
93-254 송차영
91-127 여완구
91-598 유원현
89-726 이상우
4536 이정기
94-1201 장경옥
1568 장관이
93-1086 전연숙
95-66 정경심
91-1181 조원국
5364 최승윤
95-1376 하종건
99-965 한원규
94-640 황하봉

92-1737 공석두
82-531 김동의
492 김병수
95-569 김영길
95-8 김정배
88-889 김진식
96-286 김형조
95-356 류정걸
98-1199 박노용
96-418 방창석
85-157 서석태
96-620 오춘성
95-150 유정범
81-1002 장세용
1971 정상주
90-622 조동석
88-393 조재순
85-432 최용길
86-371 하종건
93-1414 정난주
91-415 정옥점
83-514 조균실
85-157 최복순
91-609 최영랑
89-1253 최정옥
94-69 허준화
90-527 황치회

12교구

◆ 남김사

98-1081 장영기
90-24 공병식
89-54 김광은
90-573 김영규
91-871 김윤문
94-1031 김정홍
84-1284 김형종
93-1725 문창식
92-1498 박만형
86-455 박종운
89-750 백봉선
93-1798 송재혁
89-1115 안상이
90-882 오세익
89-1500 유희복
95-273 차상옥
92-433 최우근
92-664 홍금성
95-189 황순선

95-367 고배식
89-969 권백용
94-810 김기옥
96-208 김영모
98-965 김희준
88-397 노규식
89-1014 김정희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08 고영순
94-1908 김미리
92-377 김신순
87-643 김영옥
87-168 김용열
94-1031 김인영
91-317 김지연
93-1773 김화영
95-402 남준자
87-731 노승연
90-217 박경희
94-1995 박영숙
91-1090 박영익
97-836 박정희
92-338 박혜성
86-376 백애순
94-1972 서옥선
92-1742 소금영
89-528 심기남
89-54 오경숙
90-24 유명희
87-431 윤부기
92-334 이경희
82-140 이무순
87-689 이영숙
95-1238 이정선
85-969 임경순
89-870 임학선
95-1420 장순옥
90-847 정상임
93-1798 정영자
90-404 조옥련
88-257 최종란
89-963 한주연
84-977 홍성순

91-1238 곽계자
93-1725 길정례
99-211 김선향
91-821 김미진
98-425 김언정
94-156 김옥순
92-1488 김희진
91-1068 김정희
99-329 김현자
89-692 남옥순
90-159 류동숙
89-866 박병순
79-485 박임순
93-89 배진형
87-632 변옥선
94-156 서은옥
94-729 신경애
91-695 안현희
93-1102 오정혜
93-732 유현순
89-1114 윤자옥
90-882 이명숙
95-120 이분옥
95-125 이윤경
89-750 이정희
89-688 임복례
92-656 장금자
89-1115 전재숙
89-981 최옥현
94-923 정연희
88-1054 정정임
94-498 현광자
97-178 홍정예

13교구

◆ 남김사

83-514 강석인
83-520 김광호
95-667 김만기
82-527 김병익
89-1230 김익현
89-875 김종학
85-562 김학은
86-731 김홍우
91-857 민동명
94-988 박병옥
91-52 박석산
80-504 백선엽
96-909 손영옥
88-965 신광식
95-619 오필선
95-688 윤성열
96-57 이근우
92-319 이보한
89-421 이연구
93-1884 이창영
91-372 전돈석
1260 정수일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67 고재선
93-1302 김 근
92-1630 김만수
93-9 김성상
97-89 김재기
90-350 김지찬
82-69 김현근
84-1274 나종원
92-1427 박규철
89-333 박병후
888 박운택
91-128 변성주
87-742 송영상
94-1111 안병택
85-299 우종호
90-1015 윤여병
90-1009 이동욱
89-1789 이석재
80-316 이영균
86-314 임병준
89-736 정영재
479 전세종
86-172 조용수
90-527 최규환
91-319 최창길
91-68 한용택
84-901 황민성

91-412 고재훈
98-611 김덕은
88-153 김병상
89-711 김재윤
94-1612 김진목
80-527 김현철
92-70 노충헌
88-539 박규철
2861 박상철
90-1060 박현웅
84-1231 변인식
93-254 송차영
91-127 여완구
91-598 유원현
89-726 이상우
4536 이정기
94-1201 장경옥
1568 장관이
93-1086 전연숙
95-66 정경심
91-1181 조원국
5364 최승윤
95-1376 하종건
99-965 한원규
94-640 황하봉

92-1737 공석두
82-531 김동의
492 김병수
95-569 김영길
95-8 김정배
88-889 김진식
96-286 김형조
95-356 류정걸
98-1199 박노용
96-418 방창석
85-157 서석태
96-620 오춘성
95-150 유정범
81-1002 장세용
1971 정상주
90-622 조동석
88-393 조재순
85-432 최용길
86-371 하종건
93-1414 정난주
91-415 정옥점
83-514 조균실
85-157 최복순
91-609 최영랑
89-1253 최정옥
94-69 허준화
90-527 황치회

14교구

◆ 남김사

98-1081 장영기
90-24 공병식
89-54 김광은
90-573 김영규
91-871 김윤문
94-1031 김정홍
84-1284 김형종
93-1725 문창식
92-1498 박만형
86-455 박종운
89-750 백봉선
93-1798 송재혁
89-1115 안상이
90-882 오세익
89-1500 유희복
95-273 차상옥
92-433 최우근
92-664 홍금성
95-189 황순선

95-367 고배식
89-969 권백용
94-810 김기옥
96-208 김영모
98-965 김희준
88-397 노규식
89-1014 김정희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08 고영순
94-1908 김미리
92-377 김신순
87-643 김영옥
87-168 김용열
94-1031 김인영
91-317 김지연
93-1773 김화영
95-402 남준자
87-731 노승연
90-217 박경희
94-1995 박영숙
91-1090 박영익
97-836 박정희
92-338 박혜성
86-376 백애순
94-1972 서옥선
92-1742 소금영
89-528 심기남
89-54 오경숙
90-24 유명희
87-431 윤부기
92-334 이경희
82-140 이무순
87-689 이영숙
95-1238 이정선
85-969 임경순
89-870 임학선
95-1420 장순옥
90-847 정상임
93-1798 정영자
90-404 조옥련
88-257 최종란
89-963 한주연
84-977 홍성순

91-1238 곽계자
93-1725 길정례
99-211 김선향
91-821 김미진
98-425 김언정
94-156 김옥순
92-1488 김희진
91-1068 김정희
99-329 김현자
89-692 남옥순
90-159 류동숙
89-866 박병순
79-485 박임순
93-89 배진형
87-632 변옥선
94-156 서은옥
94-729 신경애
91-695 안현희
93-1102 오정혜
93-732 유현순
89-1114 윤자옥
90-882 이명숙
95-120 이분옥
95-125 이윤경
89-750 이정희
89-688 임복례
92-656 장금자
89-1115 전재숙
89-981 최옥현
94-923 정연희
88-1054 정정임
94-498 현광자
97-178 홍정예

15교구

◆ 남김사

98-1081 장영기
90-24 공병식
89-54 김광은
90-573 김영규
91-871 김윤문
94-1031 김정홍
84-1284 김형종
93-1725 문창식
92-1498 박만형
86-455 박종운
89-750 백봉선
93-1798 송재혁
89-1115 안상이
90-882 오세익
89-1500 유희복
95-273 차상옥
92-433 최우근
92-664 홍금성
95-189 황순선

95-367 고배식
89-969 권백용
94-810 김기옥
96-208 김영모
98-965 김희준
88-397 노규식
89-1014 김정희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08 고영순
94-1908 김미리
92-377 김신순
87-643 김영옥
87-168 김용열
94-1031 김인영
91-317 김지연
93-1773 김화영
95-402 남준자
87-731 노승연
90-217 박경희
94-1995 박영숙
91-1090 박영익
97-836 박정희
92-338 박혜성
86-376 백애순
94-1972 서옥선
92-1742 소금영
89-528 심기남
89-54 오경숙
90-24 유명희
87-431 윤부기
92-334 이경희
82-140 이무순
87-689 이영숙
95-1238 이정선
85-969 임경순
89-870 임학선
95-1420 장순옥
90-847 정상임
93-1798 정영자
90-404 조옥련
88-257 최종란
89-963 한주연
84-977 홍성순

91-1238 곽계자
93-1725 길정례
99-211 김선향
91-821 김미진
98-425 김언정
94-156 김옥순
92-1488 김희진
91-1068 김정희
99-329 김현자
89-692 남옥순
90-159 류동숙
89-866 박병순
79-485 박임순
93-89 배진형
87-632 변옥선
94-156 서은옥
94-729 신경애
91-695 안현희
93-1102 오정혜
93-732 유현순
89-1114 윤자옥
90-882 이명숙
95-120 이분옥
95-125 이윤경
89-750 이정희
89-688 임복례
92-656 장금자
89-1115 전재숙
89-981 최옥현
94-923 정연희
88-1054 정정임
94-498 현광자
97-178 홍정예

16교구

◆ 남김사

83-514 강석인
83-520 김광호
95-667 김만기
82-527 김병익
89-1230 김익현
89-875 김종학
85-562 김학은
86-731 김홍우
91-857 민동명
94-988 박병옥
91-52 박석산
80-504 백선엽
96-909 손영옥
88-965 신광식
95-619 오필선
95-688 윤성열
96-57 이근우
92-319 이보한
89-421 이연구
93-1884 이창영
91-372 전돈석
1260 정수일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67 고재선
93-1302 김 근
92-1630 김만수
93-9 김성상
97-89 김재기
90-350 김지찬
82-69 김현근
84-1274 나종원
92-1427 박규철
89-333 박병후
888 박운택
91-128 변성주
87-742 송영상
94-1111 안병택
85-299 우종호
90-1015 윤여병
90-1009 이동욱
89-1789 이석재
80-316 이영균
86-314 임병준
89-736 정영재
479 전세종
86-172 조용수
90-527 최규환
91-319 최창길
91-68 한용택
84-901 황민성

91-412 고재훈
98-611 김덕은
88-153 김병상
89-711 김재윤
94-1612 김진목
80-527 김현철
92-70 노충헌
88-539 박규철
2861 박상철
90-1060 박현웅
84-1231 변인식
93-254 송차영
91-127 여완구
91-598 유원현
89-726 이상우
4536 이정기
94-1201 장경옥
1568 장관이
93-1086 전연숙
95-66 정경심
91-1181 조원국
5364 최승윤
95-1376 하종건
99-965 한원규
94-640 황하봉

92-1737 공석두
82-531 김동의
492 김병수
95-569 김영길
95-8 김정배
88-889 김진식
96-286 김형조
95-356 류정걸
98-1199 박노용
96-418 방창석
85-157 서석태
96-620 오춘성
95-150 유정범
81-1002 장세용
1971 정상주
90-622 조동석
88-393 조재순
85-432 최용길
86-371 하종건
93-1414 정난주
91-415 정옥점
83-514 조균실
85-157 최복순
91-609 최영랑
89-1253 최정옥
94-69 허준화
90-527 황치회

17교구

◆ 남김사

98-1081 장영기
90-24 공병식
89-54 김광은
90-573 김영규
91-871 김윤문
94-1031 김정홍
84-1284 김형종
93-1725 문창식
92-1498 박만형
86-455 박종운
89-750 백봉선
93-1798 송재혁
89-1115 안상이
90-882 오세익
89-1500 유희복
95-273 차상옥
92-433 최우근
92-664 홍금성
95-189 황순선

95-367 고배식
89-969 권백용
94-810 김기옥
96-208 김영모
98-965 김희준
88-397 노규식
89-1014 김정희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08 고영순
94-1908 김미리
92-377 김신순
87-643 김영옥
87-168 김용열
94-1031 김인영
91-317 김지연
93-1773 김화영
95-402 남준자
87-731 노승연
90-217 박경희
94-1995 박영숙
91-1090 박영익
97-836 박정희
92-338 박혜성
86-376 백애순
94-1972 서옥선
92-1742 소금영
89-528 심기남
89-54 오경숙
90-24 유명희
87-431 윤부기
92-334 이경희
82-140 이무순
87-689 이영숙
95-1238 이정선
85-969 임경순
89-870 임학선
95-1420 장순옥
90-847 정상임
93-1798 정영자
90-404 조옥련
88-257 최종란
89-963 한주연
84-977 홍성순

91-1238 곽계자
93-1725 길정례
99-211 김선향
91-821 김미진
98-425 김언정
94-156 김옥순
92-1488 김희진
91-1068 김정희
99-329 김현자
89-692 남옥순
90-159 류동숙
89-866 박병순
79-485 박임순
93-89 배진형
87-632 변옥선
94-156 서은옥
94-729 신경애
91-695 안현희
93-1102 오정혜
93-732 유현순
89-1114 윤자옥
90-882 이명숙
95-120 이분옥
95-125 이윤경
89-750 이정희
89-688 임복례
92-656 장금자
89-1115 전재숙
89-981 최옥현
94-923 정연희
88-1054 정정임
94-498 현광자
97-178 홍정예

18교구

◆ 남김사

83-514 강석인
83-520 김광호
95-667 김만기
82-527 김병익
89-1230 김익현
89-875 김종학
85-562 김학은
86-731 김홍우
91-857 민동명
94-988 박병옥
91-52 박석산
80-504 백선엽
96-909 손영옥
88-965 신광식
95-619 오필선
95-688 윤성열
96-57 이근우
92-319 이보한
89-421 이연구
93-1884 이창영
91-372 전돈석
1260 정수일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67 고재선
93-1302 김 근
92-1630 김만수
93-9 김성상
97-89 김재기
90-350 김지찬
82-69 김현근
84-1274 나종원
92-1427 박규철
89-333 박병후
888 박운택
91-128 변성주
87-742 송영상
94-1111 안병택
85-299 우종호
90-1015 윤여병
90-1009 이동욱
89-1789 이석재
80-316 이영균
86-314 임병준
89-736 정영재
479 전세종
86-172 조용수
90-527 최규환
91-319 최창길
91-68 한용택
84-901 황민성

91-412 고재훈
98-611 김덕은
88-153 김병상
89-711 김재윤
94-1612 김진목
80-527 김현철
92-70 노충헌
88-539 박규철
2861 박상철
90-1060 박현웅
84-1231 변인식
93-254 송차영
91-127 여완구
91-598 유원현
89-726 이상우
4536 이정기
94-1201 장경옥
1568 장관이
93-1086 전연숙
95-66 정경심
91-1181 조원국
5364 최승윤
95-1376 하종건
99-965 한원규
94-640 황하봉

92-1737 공석두
82-531 김동의
492 김병수
95-569 김영길
95-8 김정배
88-889 김진식
96-286 김형조
95-356 류정걸
98-1199 박노용
96-418 방창석
85-157 서석태
96-620 오춘성
95-150 유정범
81-1002 장세용
1971 정상주
90-622 조동석
88-393 조재순
85-432 최용길
86-371 하종건
93-1414 정난주
91-415 정옥점
83-514 조균실
85-157 최복순
91-609 최영랑
89-1253 최정옥
94-69 허준화
90-527 황치회

19교구

◆ 남김사

98-1081 장영기
90-24 공병식
89-54 김광은
90-573 김영규
91-871 김윤문
94-1031 김정홍
84-1284 김형종
93-1725 문창식
92-1498 박만형
86-455 박종운
89-750 백봉선
93-1798 송재혁
89-1115 안상이
90-882 오세익
89-1500 유희복
95-273 차상옥
92-433 최우근
92-664 홍금성
95-189 황순선

95-367 고배식
89-969 권백용
94-810 김기옥
96-208 김영모
98-965 김희준
88-397 노규식
89-1014 김정희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08 고영순
94-1908 김미리
92-377 김신순
87-643 김영옥
87-168 김용열
94-1031 김인영
91-317 김지연
93-1773 김화영
95-402 남준자
87-731 노승연
90-217 박경희
94-1995 박영숙
91-1090 박영익
97-836 박정희
92-338 박혜성
86-376 백애순
94-1972 서옥선
92-1742 소금영
89-528 심기남
89-54 오경숙
90-24 유명희
87-431 윤부기
92-334 이경희
82-140 이무순
87-689 이영숙
95-1238 이정선
85-969 임경순
89-870 임학선
95-1420 장순옥
90-847 정상임
93-1798 정영자
90-404 조옥련
88-257 최종란
89-963 한주연
84-977 홍성순

91-1238 곽계자
93-1725 길정례
99-211 김선향
91-821 김미진
98-425 김언정
94-156 김옥순
92-1488 김희진
91-1068 김정희
99-329 김현자
89-692 남옥순
90-159 류동숙
89-866 박병순
79-485 박임순
93-89 배진형
87-632 변옥선
94-156 서은옥
94-729 신경애
91-695 안현희
93-1102 오정혜
93-732 유현순
89-1114 윤자옥
90-882 이명숙
95-120 이분옥
95-125 이윤경
89-750 이정희
89-688 임복례
92-656 장금자
89-1115 전재숙
89-981 최옥현
94-923 정연희
88-1054 정정임
94-498 현광자
97-178 홍정예

20교구

◆ 남김사

83-514 강석인
83-520 김광호
95-667 김만기
82-527 김병익
89-1230 김익현
89-875 김종학
85-562 김학은
86-731 김홍우
91-857 민동명
94-988 박병옥
91-52 박석산
80-504 백선엽
96-909 손영옥
88-965 신광식
95-619 오필선
95-688 윤성열
96-57 이근우
92-319 이보한
89-421 이연구
93-1884 이창영
91-372 전돈석
1260 정수일
98-727 조성직
91-478 차상우
91-485 최 건
5329 한송엽
96-464 한준규

92-1167 고재선
93-1302 김 근
92-1630 김만수
93-9 김성상
97-89 김재기
90-350 김지찬
82-69 김현근
84-1274 나종원
92-1427 박규철
89-333 박병후
888 박운택
91-128 변성주
87-742 송영상
94-1111 안병택
85-299 우종호
90-1015 윤여병
90-1009 이동욱
89-1789 이석재
80-316 이영균
86-314 임병준
89-736 정영재
479 전세종
86-172 조용수
90-527 최규환
91-319 최창길
91-68 한용택
84-901 황민성

91-412 고재훈
98-611 김덕은
88-153 김병상
89-711 김재윤
94-1612 김진목
80-527 김현철
92-70 노충헌
88-539 박규철
2861 박상철
90-1060 박현웅
84-1231 변인식
93-254 송차영
91-127 여완구
91-598 유원현
89-726 이상우
4536 이정기
94-1201 장경옥
1568 장관이
93-1086 전연숙
95-66 정경심
91-1181 조원국
5364 최승윤
95-1376 하종건
99-965 한원규
94-640 황하봉

92-1737 공석두
82-531 김동의
492 김병수
95-569 김영길
95-8 김정배
88-889 김진식
96-286 김형조
95-356 류정걸
98-1199 박노용
96-418 방창석
85-157 서석태
96-620 오춘성
95-150 유정범
81-1002 장세용
1971 정상주
90-622 조동석
88-393 조재순
85-432 최용길
86-371 하종건
93-1414 정난주
91-415 정옥점
83-514 조균실
85-157 최

2003년 일꾼 명단

05	원미	김은철	안정엽	임연수	김금숙		
	고강	김은철	김옥순	임연수	김은영		
	원종	김은철	정성자	임연수	오부좌자	전옥이	
	작전	김은철	임원실	임연수	노명순		
06	계산	강진택	정순옥	양승복	김영희		
	산곡	강진택	강봉순	양승복	성향록	정금순	
	부평	강진택	박영순	양승복	조윤월		
	부개	강진택	박영순	양승복	은영선		
	가좌	강진택	이정순	양승복	서덕순		
07	만수	장철규	이해수	정 준	박연자		
	구월	장철규	이상덕	정 준	함명순	김명렬	
	인천	장철규	지인숙	정 준	이정수		
	연수	장철규	이춘일	정 준	박숙희		
	서인천	장철규	이춘일	정 준	장응숙		
08	관리		장철규		김위자		

34 구역

14 교구

교구장/김단용 지도/이유진 부지도/김정신 간사/김영환 김병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여의도	조홍진	오화자	공석생	원정희		강순영
	당산	조홍진	조동숙	공석생	한정화		최현주
	문래	조홍진	박정란	공석생	유인영		김영자
	양평	조홍진	강순희	공석생	이숙희	조의상	
	신길	조홍진	이경애	공석생	이애숙	강성자	
02	목1	전은배	신정순	박종율	최영춘	정은주	
	목2	전은배	채귀순	박종율	한연숙	김점순	
	목3	전은배	김경애	박종율	김병희	이선민	
	목4	전은배	김경애	박종율	이해숙	이진주	
	목5	전은배	김영미	박종율	이은숙		박명순
03	구로1	이정탁	강정일	이민호	엄향순		유미순
	구로2	이정탁	김한숙	이민호	박금식		
	구로3	이정탁	오춘실	이민호	오춘실		
	신정	이정탁	이은옥	이민호	김영미		최길영
	신도림	이정탁	홍현희	이민호	김재윤		최현정
	대림	이정탁	김한선	이민호	이애나		박정윤
04	오류	김동욱	권필순	변해수	강복희	박명희	
	고척	김동욱	정경희	변해수	이성옥		
	개봉1	김동욱	김성금	변해수	김차금		
	개봉2	김동욱	김영언	변해수	박현순	전영경	
	목6	김동욱	염미숙	변해수	박경희		정화금
05	독산1	황기용	양명자	윤석구	전숙영	강숙희	
	독산2	황기용	양명자	윤석구	정경애	김재영	
	시흥1	황기용	김영숙	윤석구	이인숙	정용애	
	시흥2	황기용	김영숙	윤석구	김선희		김경자
	하안1	황기용	김순자	윤석구	이미숙		
06	철산1	강만수	이병숙	남명선	이늠이	노미태	안희정
	철산2	강만수	이경효	남명선	최옥숙		김혜은
	하안2	강만수	전복실	남명선	고진순	김혜정	
	광명1	강만수	문영남	남명선	정정례		이정아
	광명2	강만수	임용재	남명선	정혜원		

31 구역

15 교구

교구장/이갑재 지도/김용덕 부지도/김정자 간사/남용철 김부영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흑석1	최호일	안은희	최호일	성기동		
	흑석2	최호일	김정숙	최호일	이명진	김 숙	
	상도1	최호일	조순림	최호일	김형옥		
	상도2	최호일	구영인	최호일	김동순	황명자	
	상도3	최호일	김은주	최호일	이용표		
	노량진	최호일	강순남	최호일	김부영		
02	신대방1	박미련	전경자	이상배	김옥자	박선영	
	신대방2	박미련	권완순	이상배	양영숙	강영미	
	남현	박미련	박영여	이상배	김정자		
	사당1	박미련	신재금	이상배	이용주		
	사당2	박미련	김옥남	이상배	김연향	김명화	
03	관악현대	남용철	윤춘심	최홍섭	김태숙	권수인	
	사당3	남용철	김영란	최홍섭	김성례	사삼옥	
	사당4	남용철	서정자	최홍섭	김선자	채임숙	
	사당5	남용철	조영숙	최홍섭	김옥자	최재순	
	사당6	남용철	조영숙	최홍섭	허영자	강난춘	
04	봉천1	허 오	신숙재	함경무	김경희	정 아	
	봉천2	허 오	임선영	함경무	전옥순	김진미	
	봉천3	허 오	최현자	함경무	김영옥	설금녀	
	봉천동아	허 오	임선영	함경무	고춘대		
	봉천드림	허 오	왕유남	함경무	김학선		
05	봉천4	이강근	정찬실	박석봉	서혜경	김명숙	
	봉천5	이강근	왕덕자	박석봉	오기남	노광희	
	봉천6	이상근	진정희	박석봉	박남희		
	봉천7	이강근	이문구	박석봉	성지현	이수예	
	봉천8	이강근	김종열	박석봉	박금자	김정숙	
06	신림1	박종태	김심영	강화석	송해숙	노현례	
	신림2	박종태	김춘자	강석화	박일례	나정순	
	신림3	박종태	박광자	강석화	김영실	박종숙	
	신림4	박종태	박민례	강석화	오영자	김순례	
	신림5	박종태	김향자	강석화	김명숙	김효분	
	신림6	박종태	김남석	강석화	한성수		
07	관리		이강근		이강근	김부영	

33 구역

16 교구

교구장/김영길 지도/안창덕 부지도/강덕필 간사/이기숙 현경남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과천1	김병권	김길득	김성수	석태임	권영진	
	과천2	김병권	조향순	김성수	김영숙	홍성희	
	과천3	김병권	권종순	김성수	권종순		
02	관양	김장영	진경애	현준봉	진경애	김복수	
	비산	김장영	이경자	현준봉	한동열		김미숙
	호계	김장영	정정자	현준봉	손인순	안은혜	
	안양1	김장영	김운심	현준봉	임은미	김혜진	
	안양2	김장영	김운심	현준봉	김종녀	임미희	
03	평촌1	이상범	이경자A	이상지	김성자		정미숙
	평촌2	이상범	윤인순	이상지	박홍란	최영선	
	평촌3	이상범	김명자	이상지	심재현	배경애	
	평촌4	이상범	김미자	이상지	김기화		
	평촌5	홍원석	이인숙	윤상철	강수연	한옥분	
	평촌6	홍원석	박영자	윤상철	문하숙	문수자	
	인덕원	홍원석	박진엽	윤상철	현경남		이복희
	포일	홍원석	김은순	윤상철	김숙자	박재숙	
05	산본1	안성영	최계순	김규용	장민화	조순덕	
	산본2	안성영	변금순	김규용	장혜남	고희선	
	산본3	안성영	정경희	김규용	이정덕		김영희
	산본4	안성영	오덕희	김규용	유정선	최신자	
	산본5	안성영	조윤수	김규용	유기전	윤순아	
	산본6	안성영	김정순	김규용	남우순	정승희	
	산본7	안성영	양숙자	김규용	이정연	정미숙	장인실
06	수원1	장용희	김옥산	김원호	김금순		조연희
	수원2	장용희	한숙정	김원호	한숙정		채미자
	수원3	장용희	유금순	김원호	한재순	김연단	
	수원4	장용희	김동금	김원호	한혜정	이용례	
	한일	장용희	한숙정	김원호	최정은	김예순	
	평산1	장용희	김동례	김열환	임홍숙		
	평산2	장용희	박남분	김열환	임홍숙	홍화숙	
	천안	장용희	김주분	이상범	이행숙		손수경·김홍순
07	안산1	이기숙	천태숙	김재호	천태숙		김금자
	안산2	이기숙	천태숙	김재호	유정지		고옥순
	안산3	이기숙	최정자	김재호	최정자	송순기	
	안산4	이기숙	한경화	김명철	이헌혜	김화숙	
	안산5	이기숙	한경화	김명철	박은자	한승애	

36 구역

17 교구

교구장/김종구 지도/임현덕 하종철 부지도/김연식 전은희 간사/송영준 신옥자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태평	윤석민	김경희	정금수	김재남		
	신흥주공	윤석민	정은숙	정금수	배순복	신순덕	
	신흥	윤석민	조옥주	정금수	박현숙		
02	금광	김홍기	정숙영	김황진	고효영	고옥영	
	은행	김홍기	김인단	김황진	남계순	남명숙	
	상하대원	김홍기	박부미	김황진	이만순	장정자	최막점
	성남	김홍기	진명화	김황진	임창순	윤미경	
03	장미	이호일	김정희	유재훈	최양숙	김진희	
	경남	이호일	장신자	유재훈	최낙희	조인옥	
	매화	이호일	이순일	유재훈	한경분	정은해	
	목련	이호일	이상금	유재훈	김현수		황윤희
04	이매1	정부조	전경금	이창우	유기영	양백주	이은진
	이매2	정부조	김경자	이창우	최경숙	정현자	
	이매3	정부조	김연수	이창우	우영희	송인복	전미리
05	매송	정선현	강호일	유현동	정운애	정은자	
	아름1	정선현	권영애	유현동	박재경		
	아름2	정선현	차창숙	유현동	김정원		
	아름3	정선현	정옥남	유현동	김영순		
06	서현1	이용헌	정경희	한만혁	봉경숙	오인숙	
	서현2	이용헌	박천례	한만혁	정현애		
	서현3	이용헌	최영희	한만혁	황은미	윤경중	
07	효자	김연근	유기순	박희원	김순자	예은경	
	장안	김연근	최태희	박희원	이옥순	심재선 · 김영화	

2003년 일꾼 명단

	샛별	김연근	강정희	박희원	이경숙	신순희	
08	수내	김만중	김경애	안덕호	서정애	황원길	
	파크	김만중	나순희	안덕호	임영애	강인자	
	양지1	김만중	신진숙	안덕호	최희숙	박삼순	
	양지2	김만중	정경자	안덕호	현명희		
09	한솔	안병호	김숙자	김재홍	배은경	윤영아	
	정자1	안병호	안숙자	김재홍	박칠순	김순이	
	정자2	안병호	이정숙	김재홍	김광혜	최호삼	
	정자3	안병호	김정숙	김재홍	신서운		
	정든	안병호	오천자	김재홍	강민경	김춘숙 · 공희숙	
10	청솔1	권병철	손옥희	문경안	최선자		
	청솔2	권병철	조 숙	문경안	이영자	양은혜	
	까치	권병철	한영덕	문경안	명신덕		
	하얀	권병철	곽기영	문경안	김영님	홍순실	
	무지개1	권병철	지순애	문경안	최형례	장보윤	
	무지개2	권병철	조남숙	문경안	김영희		
11	연원	한만교	방소애	박민호	정혜진	오영란	
	구성1	한만교	이명자	박민호	허순자	이금순	이계현
	구성2	한만교	최영자	박민호	김경자	김현화	
12	신갈	박광래	왕인숙	허형철	오계순	최정순	
	상갈	박광래	서화자	허형철	안정숙		
	용인	박광래	유혜자	허형철	서자화		
	양지	박광래	문옥순	허형철	박숙경		
13	죽전1	진학래	염숙현	임광신	최영순	이순석	
	죽전2	진학래	최영득	임광신	김진아		
	수지1	진학래	윤정식	임광신	송혜경	조옥례	
	수지2	진학래	임근예	임광신	홍현기		
	동천	진학래	변옥희	임광신	이희순	유재옥 · 최영옥	
14	성원	이인영	남정애	김상호	김외숙		
	상현1	이인영	고경숙	김상호	장영자	지정민	
	상현2	이인영	김봉숙	김상호	김필숙		
	상현3	이인영	최 규	김상호	박경숙		
	상현4	이인영	최현숙	김상호	박은영	임점희	
15	신정1	유상태	이인숙	김재윤	신혜진		
	신정2	유상태	박순옥	김재윤	박영자	왕순하	
	성복1	유상태	김효정	김재윤	김지련		
	성복2	유상태	홍혜숙	김재윤	김금숙	조은정	

60구역

19교구

교구장 / 고제승 지도 / 류병희 부지도 / 이수경

행정위원회

위원장 / 진홍용
서 기 / 김영달 회 계 / 김영은
위 원 / 노광헌 이 훈 임무천 이형수
사무국장 / 김영달
동산부장, 상조회장, 충현기도원감 / 김종구

재정위원회

위원장 / 이 훈
서 기 / 안종욱 회 계 / 박홍규
위 원 / 김의철 노광헌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실행위원 /
김연근 김장영 김진옥 김향태 마도원 박문태 박병택 박재인 박종현 박창근 박창서 송두섭 송영주 신중식 안상직 이상호 이 철 임순배 전재룡 정 준 조영철 조종광 진학래 최석규 홍시오 황학규

건축위원회

위원장 / 임무천
서 기 / 황영일 회 계 / 최지윤
위 원 / 오정헌 최무길 이정우 김영달 김영은

감사위원회

위원장 / 이병옥
서 기 / 이종섭 서 기 / 정운석
위 원 / 최무길 전홍렬 박덕양 정청길 고제승
경상부감사 / 이병옥
실행위원 / 김연태 장철환 지규성 허만선 최은경

법인운영위원회

위원장 / 노광헌 서 기 / 이형수 위 원 / 이병학 남선우 차신득 안종욱

교육훈련원

원 장 / 당회장
부원장 / 이종석 지 도 / 서광진
서 기 / 이형수 회 계 / 이실호

부서	원감	지도
교육연구원	이종석	서광진
성경연구원	김은호	이수근
충현어린이집	안종욱	
전도훈련원	김광남	여국근
선교연구원	김의철	이종철

충현장학회

회 장 / 당회장
부회장 / 이 훈 지 도 / 김용덕
위 원 / 노광헌 진홍용 김구형 고제승

제직회

회 장 / 당회장 서 기 / 안석현 부서기 / 김승곤 임창식 함철주

집사회

회 장 / 장철환 지 도 / 정현민 부회장 / 고승균

권사회

회 장 / 명정옥 지 도 / 이종대
서 기 / 이순자

	회장	부회장	
1지회	오화자	정호진	(1, 6, 10, 14교구)
2지회	이경현	김숙자	(2, 7, 11, 15교구)
3지회	신영순	유영희	(3, 8, 9, 12교구)
4지회	한영덕	조 숙	(4, 5, 13, 16, 17교구)

노회총대

노회총대 / 노광헌 이병학 이 훈

충현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헌 이병학 차신득 김광남 이하영
감 사 / 엄필성 송환창

재단법인 충현동산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헌 이 훈 김영길 김재명 이하영 박인건 안종욱
감 사 / 정운석 전홍렬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이 사 장 / 김성관
상임이사 / 김재명
이 사 / 김의철 노광헌 김광남 윤성철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김구형
감 사 / 차신득 이하영

혜심원에서 발견한 예수님

김 도 현 (대학부 3학년)

대학부 1학년이었던 작년 9월. 나는 그 때까지도 대학부라는 곳에 적응하지 못 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믿음이 그만큼이나 어렸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단지 대학부와 주일예배만을 오갈 뿐이었던 신앙 생활.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들어가게 된 소그룹이 바로 '돌베개' 였다. 서울역에 있는 혜심원이라는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돌베개. 교회 일을 주말도 모자라서 평일까지 해야 한다니! 나는 참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일단 한 번 가 봤는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30여명의 아이들이 외로이 그들만의 공간에 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돌베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어리석게도 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려 했고 그러한 마음은 쉽게 깨졌다.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했으며 자만했던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돌베개에 간 것이 성령님의 인도였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빌 3:17).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걸까? 그것은 복음이었다.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혹은 주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다만 그 아이들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용 서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체험하였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께 화내는 아버지를 보며 정말 용서하기 싫은 마음을 갖고 학교에 왔는데 그날 저의 말씀 묵상 본문이 이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35).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그것도 공짜로 해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자주 잊고 사는지요. 나는 본래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공로도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는 일만 달란트를 임금님께 감면 받고도 친구에게는 일백 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넣은 종처럼 용서하는 일에 너무나도 인색했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임을 정말 알고 있었다면, 임금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잊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도 나의 죄를 그냥 잊으신 것처럼요. 잠시나마 마음에 분을 품었던 저를 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한 후 아버지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고 살아요"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 태 은 (대학부 1학년)

예레미야 애가 말씀 묵상

백 경 희 (대학부 6학년 팀장)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애 3:18-24).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말은 좋고 넉넉한 상황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저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보아야 하는 절망적이고, 비탄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21절에 나와 있듯이 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였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침착할 수도 없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도 없었겠지만 예레미야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의 눈을 들기를 매우 애썼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하지 않는, 늘 동일한 성품으로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갖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1-13).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중에서

하나님의 전능

전능이란 힘뿐만이 아니라
주권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권이 더 앞선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 중에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선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것은 고통의 문제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사용된 "선함"이라는 말과 "전능"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다시 바라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고통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난에서는 먼저 '전능' 이라는 말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다음 난에서 '선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능이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불가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다, 즉 불가능이 없다' 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하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있다면 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능이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것을 시키는 대로 다 한다면 그것이 전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저 능력 있는 노예일 뿐인 것입니다. 전능이란 힘뿐만이 아니라 주권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권이 더 앞선 개념입니다.

불치의 병이나 지진 등 인간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기도로도 바뀌지 않는 저 가차없는 '자연법칙' 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에 강력한 반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독립적이며 '가차없는' 자연과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의 사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차없는 자연법칙' 과 고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들도 자유의지 없는 많은 사물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자유의지와 영혼을 가진 생명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도 명령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차없는 자연법칙' 은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자연법칙과 고통을 유발하는 것들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기적이라 부르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명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며 인간의 새로운 법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칙을 변형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능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능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서두의 말에서 제시한 그분의 전능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궁금증이 완전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며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다룰 '선함' 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서두의 말은 완전히 깨끗하게 틀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편집실)

간증과 나눔

구역장 탐방

너도 기뻐할 것이요

워커힐 구역 / 구역장 : 조은신 권사

박○○성도는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나, 남편이 교회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남편의 눈을 피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러다가, 오랜 기도 끝에 남편을 설득하여 3년 전에 교회에 등록했다. 평생에 가장 무거웠던 짐을 벗은 것이다. 구역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했다. 아직 제사 등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가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 짐도 어느날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 벗겨줄 것을 믿는다. 그런데 남편이 전도 초청잔치에 나와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박성도는 남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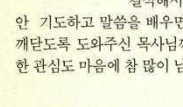
구역원들은 성도가 무거운 짐을 벗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 기도에는 여호와가 우리의 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변자,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몰라 불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의심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믿은 엘리사벳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던 사라와 비교되는 모습이다. 박○○성도의 경우도 여호와가 주권자이심과 그분의 권능,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의심했다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주님의 은총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이심과 예수님이 중보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

구역장은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될 수 없으므로, 회개하여 주 앞에 바로 서는 것과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주 앞에 계속 물어보았듯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무리했다. 실로 우리가 주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이며, 은총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다.

(권요셉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윤성자' 성도를 소개합니다



저는 슬하에 딸 두 명을 두었고 등산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조금 다녀본 기억이 있는데,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그 후로는 교회와 멀리하고 지냈습니다. 성함을 잘 모르는 집사님이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가 있다면서 나를 초청했습니다. 충현 교회의 대예배는 말씀이 은혜롭고 찬양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새가족부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그 동안 자주 결석해서 12월이 되어서야 학습과 세례를 받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매주일 새가족부 교사가 보여준 따뜻한 관심도 마음에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한숙정 통신원)

✚ 양호실

1교구 임재경 씨(남28세) 교통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되어 발가락 피부이식 수술을 했는데, 곧 정형외과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환우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8교구 이종엽 성도(여48세) 자궁경부암 수술 후, 암이 엉덩이뼈에 전이되어 2차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감기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데다가, 신경이 눌려 오른 쪽 다리 전체가 저려서 수술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도록, 수술이 잘 되고 병도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2교구 권미네자 집사(여68세) 췌장암 말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강충열 집사(남50세) 뇌의 염증으로 의식불명이었다가 회복되었지만, 아직까지 몸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환우와 가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환우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시편 125편 - 평강

시편 124편에 이어 시편 125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안정하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125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안전망이 없어 행여 떨어질까 공포에 떨며 공중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요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고대 사회의 성읍들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정치적으로, 인격적으로 저마다를 안전하게 지켜 줄 치밀하고 광범위한 방어 체계를 세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보호와 안전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스스로 그런 요새를 세울 필요가 없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시 125:2).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둘러싸고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는 성벽이나 그 어떠한 요새보다도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갑자기 우리를 덮치지는 않을까,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후(前後)를 두르고" 계십니다(시 139:5).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저희를 보전하사…,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1,15). 우리가 어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요동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날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가득한 날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오르내리는 수은주보다 더 예민하게 슬픔, 기쁨, 성공, 실패, 그 무엇에든 동요합니다. 쉽게 불안해지고, 두려운 기분에 사로잡히고, 확신을 갖지 못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가로질러 승리의 행진을 하는 날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의 떡과 고기가 그리워 사막에서 불평하는 나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함께 하다가도, 다음 날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며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를 살게 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울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녕 하나님 그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에 달려 있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불안정의 또 다른 출처는 아픔이나 고난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소중한 것을 잃거나, 고난이 닥칠 때는 이 모든 것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아픔은 절망으로 내려앉고, 근심은 재앙을 상상하며 극도의 초조로 치닫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시 125:3). 악이 영원하다면, 구원의 희망조차 없다면,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죄악에 손을 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위험이나 압제가 믿음보다 과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욥' 에게도, '에레미야' 에게도, 예수님께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증언도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다음주에 계속)

(엄혜원 기자)

♬ 다음 주일 찬송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작시자와 작곡자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성탄 찬송은 예수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바쳐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자.

1절: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다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2절: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맘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3절: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8분의 6박자의 부드러움과 약간 느린 템포를 갖추어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찬양위원회)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유년부에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웠다

노아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족만 빼고 말을 안들었다. 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답답하다. 7일이라는 기간까지 주셨는데. 한번 닫힌 방주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주신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간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

고 규 민 (유년부 4과1반)

감사할 것을 많이 주신 하나님

오 수 빈 (소년부 전리9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정말 많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언제나 언제나 감사, 감사해야 한다.
태어나게 해 주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가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친구가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재능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해야 할 것은 매우 많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끔 감사할 게 없고, 불만만이 가득한 날도 있다.
이럴 때도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난 지난 주에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다닌다.
불편함 때문에 불만을 하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내게 장애자의 불편함을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니 이 또한
감사할 일이다.
만일 감사할 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진리의 샘

로마서(Rom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❷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율법과 정죄(定罪)로부터의 자유, 즉 성화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8:9), 성화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8:16,21), '하나님의 후사'(8:17),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8:33)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화의 완성이 바로 아무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8:39). 또한 선택과 반대되는 '유기'(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라는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11:33).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하면서(12:2), '하나님의 명'(13:2, 16:26), '하나님의 일꾼'(13:6), '하나님의 나라'(14:17), '하나님의 사업'(14:20),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15:16), '하나님의 일'(15:17), '하나님의 뜻'(15:32) 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둥 삼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신약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구약에 근거하여 구약과 신약성경의 연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전체적인 구성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읽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되, 다시금 로마서가 '죄' '구원' '성화' '선택' '헌신'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장~3장까지는 '죄'의 문제를 다루었고, 4장~5장까지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6장~8장까지는 '성화'의 문제를, 9장~11장까지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12장~16장까지는 '섬김'이라는 실천적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이렇게 커다란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유익하지만, 로마서는 워낙 조직적이라 그렇게 읽을 필요성이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랍니다. 바울은 다섯 가지 주제를 믿음이라는 렌즈로 풀어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거듭났으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이 다섯 가지의 주제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으며, 믿음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읽으신다면 로마서가 정말 쉬운 성경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 (출판국 지도)

믿음의 학교에서

왕으로 뽑힌 사울

사무엘은 왕을 선출하기 위하여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삼상 10:17).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장소이지요. 사무엘은 인본주의적인 왕을 요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다시 한번 꾸짖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지목합니다(삼상 10:20,21).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삼상 9:1), 인물이 준수하며, 재능이 출중한 자였기 때문입니다(삼상 9:2). 그러나 인간이 세운 지도자 사울은 질린 말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에 훌륭해보여도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행 13:21,22).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제도 자체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적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가 인간의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도 못하고, 대통령 중심제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문화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GNP가 높이 올라간다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임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삼상 10:27). 비류들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자신들의 왕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왕이 뽑혔지만, 그들 중의 일부는 또 다른 구실로 못 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의 왕정제도는 시기, 질투와 분열이 갈수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왕정제도는 갈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왕정제도는 완전할 수도, 절대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셔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온전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3:2).

(권향임 기자)

교 회 소 식

모 임

1. 정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16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베다니홀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17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베다니홀
3. 건축위원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30
장소 : 신교관 301호
4. 권사 전체교육
일시 : 18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 갈릴리홀

남녀전도회

1. 바울 1지회 총회
일시 : 21일(토) 18:00
장소 : 교육관 206호
2. 바울 2지회 총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교육관 301호
3. 바울 16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복지관 지하2층
4. 베드로 9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새가족부 교사실
5. 베드로 11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교육관 307호
6. 베드로 16지회 월례회
일시 : 17일(화) 18:30
장소 : 희망센
(인덕원 삼성A 111-104
☎351-542-4223)
7. 오한 9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교육관5층 청년2부 집회실
8. 오한 17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9:00
장소 :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건영A 112-1602)
9. 한나 12지회 월례회
일시 : 22일(다음주일) 15:00
장소 : 충현복지관
10. 에스더 1지회 총회
일시 : 16일(월) 11:30
장소 : 신혼가정부실
11. 에스더 10지회 총회
일시 : 22일(다음주일) 15:00
장소 : 교구모임장소
12.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복지관 지하1층
13. 에스더 15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갈릴리홀
14. 에스더 17지회 총회
일시 : 16일(월) 11:20
장소 : 미금역 하나은행 11시 출발
(한이정 ☎719-7411)
15. 루디아 13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교구간사 소회의실
16. 미리아 6지회 총회
일시 : 17일(화) 11:00
장소 : 장해선 집사댁

별 세

1. 이종련 성도
윤성의 권찰의 시모, 7교구 암사2구역 / 9일 별세, 11일 장례

결 혼

1. 김경민 군(김광 집사, 박종영 권사의 아들, 4교구)과 심현숙 양(심윤석 씨, 조민자 씨의 딸, 19교구) / 17일(화) 12:30, 갈릴리홀
2. 신유진 군(신광용 성도, 강명옥 성도의 아들, 14교구)과 안은미 양(안병호 안수집사, 김숙자 권사의 딸, 17교구) / 19일(목) 13:00, 갈릴리홀
3. 오신일 군(오수호 집사, 안정자 권사의 아들, 12교구)과 이지원 양(이충기 씨, 윤미자 씨의 딸, 19교구) / 20일(금) 12:00, 갈릴리홀
4. 권민수 군(권오찬 씨, 윤길자 씨의 아들)과 최보경 양(최학선 씨, 김순은 권사의 딸, 6교구) / 20일(금) 17:00, LG 강남타워 아모리스홀 ☎ 2005-1011
5. 장우영 군(장봉순 집사, 이광일 권사의 아들, 12교구)과 이혜정 양(이준하 씨, 김옥희 씨의 딸) / 21일(토) 13:30, 관악웨딩문화원 3층 관악홀 ☎ 853-8000
6. 박준한 군(박길홍 집사, 은필례 권사의 아들, 15교구)과 홍혜영 양(홍관봉 씨, 김정례 씨의 딸) / 21일(토) 13:30, 삼성

2002년도 제6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2월 15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김용덕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김교성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50	기독론 (이성욱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류병희 목사)	교육관 304호		
12월 22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고광환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이수근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란? (안창덕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50	문 답	교구행정소	문 답	교구행정소		
12월 29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지역 찬양예배, 본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베다니홀)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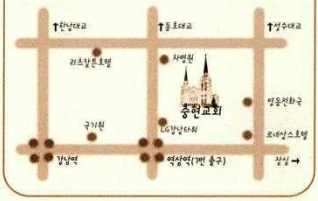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주일)
설교자	김교성	류병희	고광환	이종철	정현민	이유진	김정수
기도자	진홍용	김영주	남용철	조중민	지규성	이수경	최문실

화제빌딩 3층

주소변경

1. 박호용 안수집사
이매원동 227-15

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화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한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 양 예 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 요 집 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버스 :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오후 10:30	버스 : 금요집회 후 본당 앞 출발
기도원 차량 운행 - 월, 목 오전 10:00 / 월, 화, 목, 오후 7:00 (풍문경비실 앞 출발)		

특별제직회

일시 : 오늘 찬양예배 후
장소 : 본당
의안 : 2002 결산 및 2003 예산

권사총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갈릴리홀

전도위원회 남녀전도부 총회

일시 : 22일(다음주일) 15:15 장소 : 베다니홀
대상 : 각 교구별 신 · 구 전도회장

사랑부 차량봉사 모집

자격 : 보통1종 운전면허 소지자
봉사기간 : 주일 08:00~10:30, 12:30~15:00

차량안내부 봉사자 모집

2003년도 차량 안내부에서 남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사무국(☎552-8200, 교4406), 차량 안내부(교248)

대학부 소그룹 '돌베개'

매주 월요일 후암동에 위치한 '혜심원' 이라는 보육원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소그룹 '돌베개' 의 2003년 사역비를 마련하기 위한 일일찻집

일시 : 19일 9:00~ 22:00
장소 : 제2교육관 1층 코이노니아홀

본당 1층에 24시간 개방 기도실, 평일 북문 출입 금지

2002년도 교회의 여러 부분을 정리하고 수리하면서 교회는 한결 깨끗해졌다.
이제 금년도 마지막 공사로 본당 1층이 마무리 됐다. 그동안 탁아부실로 이용하던 큰 방의 칸을 막아 다용도의 집회실(112호)과 개방된 기도실(113호), 권사회실(114호)과 24시간 권사 기도회실(115호)로 꾸몄다. 그동안 갈릴리홀을 24시간 개방하여 수시로 기도하는 시람들에게 제공되었는데 동절기에 추워, 하절기에는 더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 113호실을 24시간 개방, 기도실로 꾸미고 냉난방 시설을 현대식으로 하여 사시사철 쾌적한 분위기에서 기도하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회 뒷문(북문)을 수요일, 금요일 집회 2시간 전부터 개방하고 그 외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교회 북쪽에서 동쪽으로 다니는 통로로 사용하면서 다람쥐고
심지어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가 질주하기도하여 안전상의 문제도 생기기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이다.
북쪽문을 이용하시는 성도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으나 교회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운전기사(1종 면허소지자)-1명 / 식당직원(기도원 · 숙식도 가능)-3명 / 산역인부(충현동산)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성수대교 충현교회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17	오혜순	1	청년2부	김영화(12)	834	김상훈	15	청년1부	
818	이선영	1	청년2부	위건우(1)	835	현종창	16	예아다부	이원식(9)
819	김명자	1	청년2부		836	이계정	16	예아다부	이원식(9)
820	김춘심	1	청년2부		837	박종권	16	예아다부	좋은숙(192)
821	도효상	19	청년1부		838	강영순	16	예아다부	
822	주관종	4	청년2부	전석환(17)	839	곽경미	19	청년1부	이수자(1)
823	오영재	5	장년1부		840	이승헌	19	청년1부	임동개(1)
824	한명자	7	예아다부	박부미(17)	841	김주영	19	대학부	박효진(16)
825	이원조	8	예아다부	권철(9)	842	이승룡	19	청년1부	이독해(8)
826	서순희	8	예아다부	권철(9)	843	황유성	19	청년1부	
827	하전혜	9	예아다부	최계순(16)	844	박은선	19	대학부	김지호(9)
828	이성조	11	예아다부	박인기(1)	845	채효정	19	대학부	정운환(2)
829	정규분	12	장년2부	이의섭(12)	846	조수형	19	대학부	박한기(16)
830	조봉학	12	예아다부	정영미(7)	847	홍정민	19	대학부	박경진(1)
831	김규봉	14	장년1부	오순도(4)	848	정주원	19	대학부	최호일(15)
832	안희영	14	장년1부	오순도(4)	849	노미란	19	대학부	
833	홍다해	14	청년2부	최영일(1)	850	이지우	19	대학부	이승우(12)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충현중보의 창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2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4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6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7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장	김은호 7교구장	노광헌 장례 서기	오진국 예배위원	이병학 교구위원장
윤인현 예배위원장	최대원 예배위원장	엄필성 제2교육위원장	강모용 구제부장	오정헌 건축위원
이 훈 전문위원장	남선우 법무전문위원	정운석 3교구장	김영길 봉사위원장	문홍구
조인제 봉사위원	김종구 충현기도원장	최무길 건축위원	김천채 1교구장	이창호 사랑부장
차신득 법률전문위원	박영식	김광남 전도위원장	이종석 기획위원장	이하영
이병옥 감사위원장	안종옥 탁아부장	임무천 건축위원장	이종섭 청빙위원장	최기홍 선교위원장
이갑재 15교구장	진홍용 청장위원장	전홍렬 학술전도부장	이정우 건축위원	김단용 14교구장
황영일 건축위원	한승규 선교기획부장	김영수 선교위원	정홍식	김환기 12교구장
원용철 제1교육위원장	이형수 장례부서기	안동현 자랑안내부장	황의만 스캔부장	김구형 제2교육위원장
최윤덕 일가족불신전도위원	이계인 어린이전도위원	박덕양 새가족부장	이태식 청년1부장	정태두 봉사위원
박홍규 기획전문위원장	권명옥 주도위원	조종환 예배위원장	배춘식 1교구장	김영달 4교구장
이실호 제1교육위원	박찬섭 제1교육위원	최지윤 청년1부장	노영한 3교구장	박철구 전도위원
정청길 예배위원	신상수 예배위원	강철형 예배위원	고계승 청년1부장	김영은 행정위원

■ 부목사

이종대 소망부	정현민 교구위원회	김동하 기획위원회	서광진 9교구	박인기 예배지부
여성기 3교구	류병희 대학부	이종철 선교위원회	김영훈 6교구	여국근 2교구
김교성 11교구	이수근 4교구	이유진 10교구	안창덕 12교구	방준영 3교구
나광영 6교구	정진호 청년1부	김용덕 10교구	이성욱 14교구	고광환 1교구
김황곤 외선부	위건량 12교구	김익환 13교구	김정수 교육부	장 훈 스넷부
임현덕 17교구	이희식 중등1부	최종철 중등1부	하종철 17교구	

■ 찬양감독 김임구

■ 여전도사

정연희 8교구	신동자 4교구	윤인숙 5교구	한영준 12교구	김연식 17교구
홍순애 10교구	이옥주 6교구	김말자 5교구	안태순 8교구	김정연 13교구
조옥자 7교구	강덕필 16교구	김정신 14교구	장혜구 2교구	최문실 11교구
전은희 1교구	김영순 15교구	김정자 19교구	이수경 19교구	

■ 단기선교사 강기엽 스리랑카

■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 스리랑카

■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집트)